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아르네 네스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홍 은 선

2013 년 8 월

#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아르네 네스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윤 용 택

홍 은 선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8 월

홍은선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3 년 8 월

# A Critical Analysis of Deep Ecology

—Focusing on Arne Naess' Ecosophy T—

Hong, Eun Seon

(supervised by Professor Yoon, Yong Tae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3. 8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 론 .....	1
II. 심층생태주의의 배경 .....	6
1. 17세기 철학과 기계론적 세계관 .....	6
2. 산업문명과 인간중심적 환경철학 .....	11
3. 탈인간중심적 환경철학 .....	20
3.1 동물해방론 .....	20
3.2 생명외경사상 .....	24
4. 심층생태주의의 태동 .....	29
III. 아르네 네스의 심층생태주의 .....	36
1. 심층생태주의의 특징 .....	36
2. 심층생태주의 환경운동 전략 .....	42
2.1 피상생태주의와의 차별화 .....	42
2.2 심층생태주의 행동강령 .....	47
3. 아르네 네스의 문제해결 전략.....	56
3.1 생명평등과 큰자아 실현 .....	56
3.2 생태지혜 T의 일상화 .....	62
3.3. 게슈탈트와 존재인식 .....	65

IV. 심층생태주의 비판 .....	69
1. 언어적 표현에 대한 비판 .....	69
2. 자연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 .....	71
3. 반문명적 경향에 대한 비판 .....	74
V. 결 론 .....	76
참고문헌 .....	80
Abstract .....	85

## I. 서론

“지금은 인간의 문명과 지구의 생태시스템이 충돌하는 시대”로서, “기후위기는 이런 충돌 중에서 가장 극명하고 파괴적이며,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화려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지구온난화’ 문제와 ‘생태위기’(ecological crisis)를 공감하지 못한다. 생태위기의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sup>2)</sup>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환경위기가 과학을 통한 현대물질문명의 부산물이니까 환경문제도 과학기술을 통해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1972년 이래, 환경문제가 국제적 의제로 꾸준히 다뤄지면서, 각종 의정서와 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환경위기 대책을 강구한 지 어언 40년이 지났으나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었다.<sup>3)</sup> 그런데 수 십 년의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

---

1) 엘 고어, 『환경재앙을 넘어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우리의 선택』, 김지석 외 옮김, 알파니스트, 2010, 30쪽.

2) 향후 환경문제의 전망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지금의 상태로 인류가 삶을 계속해나갈 경우, 총체적인 환경파괴 및 생태위기, 그리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환경생태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과학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쓰레기 문제는 쉽게 분해되는 물질로 만든 물품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생명종의 멸종문제는 유전공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문제는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온실기체 포집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

3) 1972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의 주관으로 제1차 세계기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 및 과학적인 기후변화 연구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했다. 유복환, 『Green is Money』, 위즈덤하우스, 2009, 90~91쪽.

위성만 높아질 뿐, 온실기체 농도 수치만 보더라도 지구대기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sup>4)</sup> 국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경제발전 단계도 제각각이라서, 제시되는 해결책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동안의 개량주의적인 처방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철학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구하며, 그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 갈 수 있는 세계관<sup>5)</sup>을 제시해왔다. 환경철학도 이의 연장선 위에서 인간에 의해 환경파괴와 생태위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연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우리의 욕망이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등을 고찰하고, 나름의 세계관을 제시해왔다. 환경철학은 국지적으로 시작된 환경파괴와 생태위기가 지구적 사회문제로 확산되었고,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문제해결이 병행하며 이뤄져왔으며, 역사 속 혹은 개별적 경험을 통해 수렴된 우리의 세계관을 조율하는 바로미터이다.

환경철학이 시대의 요청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철학은 인간중심적인 관점과 탈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나름의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그 전개과정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인간’이 행복한 환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과연 ‘생명’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나의 생명단위로 보아야하는 지에 대한 주제 역시 환경철학이 그동안 풀어낸 주제들이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는<sup>6)</sup> 환경철학을 형이

---

4) 미국해양대기국이 하와이 마우나케아의 화산 부근에서 측정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CO<sub>2</sub>)농도가 지난 2011년부터 1년 사이 2.67ppm 급격히 증가하여 395ppm에 육박했다고 한다. 매우 우려할만한 수치로서, 이 추세라면 2030년경에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극해의 만년설이 사라지고,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인간은 위기에 대처할 기회를 영영 가지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 2013년 3월 6일자 한국일보 기사.

5) 세계관(世界觀, world view)은 인간의 행동 규범에 대한 견해까지 포함하여 자연·사회·인간에 대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총괄적 견해”이다. 심층생태주의에 기여한 드빌(Bill Devall)과 세션즈(George Sessions)에 따르면, “지배적 세계관은 국가와 같은 사회 집단을 위한 기준틀을 형성해주는 가치와 신념과 습관과 규범의 집합이다”고 정의했다.

6) 아르네 네스 (Arne Dekke Eide Naess 1912-2009)는 노르웨이의 철학자이자 산악인으



상학으로 끌어올리고자했다. 그는 생태중심의 전체론(holism)을 표방하며, 기존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온 문제해결방법과 결별하고,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sup>7)</sup>라는 환경철학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하는, 보다 많은 질문을 계속하여 던지면서 문제의 근원까지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사실과 지식에 관한 내용을 넘고 넘어서, 모두의 건전한 이익을 해치고 또 즐겁게 생존할 수 있는 잠재성을 훼손하는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생태지혜의 수준까지 나아가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이견<sup>8)</sup>이 있지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파괴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문제를 만든 원인자로서, 문제를 안아야할 당사자로서, 문제해결의 유일한 주체로서 우리 인간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인간이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외치며, 물발자국, 탄소발자국까지 셀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강박적으로 환경위기에 대한 해법이 일상 속으로 들어

---

로서 27살의 나이에 오슬로 대학교 최연소 철학 정교수가 되었다. 그 뒤 노르웨이 교육체계에 규범과 가치에 대한 탐구를 요하는 보다 성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용한 혁명을 일으켰다. 1937년 이래 2000미터 고지의 트베르가스타인에서 살면서 자신만의 학문세계를 넓혀 갔다. 1950년 노르웨이 원정대를 이끌고 세계최초로 파키스탄의 Trich Mir(7705m) 등정에 성공하였으며, 등반에서 볼트(bolt)를 사용하는 기법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에 처음 도입하였다. 나치의 점령에 대항하는 비밀 저항운동을 지원한 이력 때문에, 훗날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작업을 했다. 데이비드 로텐버그, 『생각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요?』, 박준식 옮김, 낮은 산, 2011, 저자 소개 및 본문 참조.

- 7) 네스의 Deep ecology는 그동안 근본생태학, 근본생태주의, 근본생태론, 심층생태론, 심층생태주의 등으로 번역되어 쓰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네스가 창안한 Deep ecology를 ‘심층생태주의’로 번역하여 쓰겠다.
- 8) 기후물리학자인 프레드 싱거는 지금의 지구온난화는 150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자연적 기후변동 현상의 한 부분으로서, 이 기후 변동주기를 무시하는 환경론자들이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류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린란드에서 채취한 빙하코어를 분석한 결과를 그 증거로 제시하며, 기후변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양복사량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현재 지구는 현대온난기에 진입한지 대략 150년 정도 되었고, 이 온난화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결국에는 중세 기후 최적기의 온화한 기후를 회복할 것이라 예측한다. 프레드 싱거·데니스 에이버리,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 강민정 옮김, 동아시아, 2009.

오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이 된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한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관은 그 시대의 문명을 창출해내는 뿌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생성되고 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 혹은 수용한다. 곧 세계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문화양식을 보여준다.

한편 아직도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의 문제가 나오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우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장 먹고 살 문제에 급급해있다. 하지만 당장 우리의 세계관을 조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는 이들도 있다. 근본적 생태주의 철학자들은 급진적인(radical)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을 선도한 네스의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와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결과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철학의 전개과정과 아르네 네스가 심층생태주의에서 논의한 전반적인 사상을 검토할 것이다. 심층생태주의는 17세기 사상이 지지하는 자연에 대한 지배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일어났다. 따라서 II장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되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17세기 철학에서부터 심층생태주의가 탄생하기까지 그 배경과 관련 사상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특히 17세기 철학 사상이 근대를 형성하는 과학혁명, 산업혁명, 정치혁명 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찰하고, 그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생태위기를 벗어날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I장에서는 심층생태주의의 특징, 심층생태주의 환경운동 전략이 무엇인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스의 전략 등을 살펴보겠다. 심층생태주의의 기본 원리인 8대 강령은 심층생태주의운동과 생태주의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환경운동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네스의 아이디어는 피상생태주의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자세히 드러난다. 네스는 인간중심적인 환경운동과 차별된 심층생태주의만의 특성을 전제와 결론 추론을 통해 체계

화 하였다. 또한 특정 문제상황에서 생태지혜의 추론체계를 통해 각자에 맞는 생태지혜를 적용하도록 돕는다. 네스의 철학적 방법은 문제의 근원에까지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연의 낱알의 생명개체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식하여서 공생의 삶을 선택하기에 길잡이가 되는 방법으로 게슈탈트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도 그가 기술한 설명의 예를 통해 고찰해 보겠다.

IV장에서는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비판들, 즉 언어적 표현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 반문명적 경향에 대한 비판 등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심층생태주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된다. 하지만 논자는 심층생태주의가 그동안 인간만이 중심이며 인간을 위해 자연은 존재한다는 반생태주의적 사고, 그리고 자연을 기계처럼 분리하고 나뉘도 문제없다고 보는 이기적이고 파편화된 세계관의 결과인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은 세계관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태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세계관의 뿌리가 되는 시대의 철학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의 도처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며, 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환경문제로 인한 다양한 갈등상황은 그 중재와 논의를 위해 세계관으로서의 환경철학이 그 역할을 이어가야한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논의되는 각 시대 속에서 산출된 환경윤리와 철학의 결과물들은 삶의 현장에서 끌어올린 것으로서, 그 당시에 또 오늘 각종 환경정책과정에도 긍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관점이다.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은 불가피하게 실제적 상황에 대한 함축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환경철학은 실천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하겠다.

네스의 심층생태주의는 우주전체의 생태를 중심으로 삶의 양상을 세세히 다가가 보도록 우리의 인식을 고양하며, 생태중심의 소박한 삶을 요청한다. 네스의 생태지혜 T는 자연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음을 예시한다. 그리고 생태위기를 포함한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근원에 도달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준다.

## II. 심층생태주의의 배경

### 1. 17세기 철학과 기계론적 세계관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7세기의 세계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오늘날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의 원인을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뉴턴 물리학과 이를 지지했던 17세기 철학이 인간에게 자연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지배할 권위를 부여하여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조장했다고 여긴다. 그 이후, 자연은 더 이상 생명체나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생태위기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생명중심적이고 생태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고 길러주는 어머니로 이해했던 서구 중세인들과 자연의 관계는 “나-너 윤리에 근거했다.”<sup>9)</sup>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 그리고 길러주는 어머니로서 대지의 이미지는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문화적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였다.”<sup>10)</sup>

하지만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이어진 르네상스는 신이 아닌 개인을 인정하여 높이거나, 기존 권위 혹은 관습에 도전하는 행위도 꺼리지 않게 되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또한 르네상스와 비슷하게 신교도들을 포함하여 일반대중들이 개인주의와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주었다. 16세기 이후, 유럽은 봉건국가가 붕괴될 조짐이 보였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 발맞춰 무역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상업혁명을 구가한다. 새로운 상업적, 산

9) 이러한 윤리의 예는 나무를 베거나 광산 갱도를 파내야 할 경우 일을 시행하기 전에 위무(慰撫)를 행한다. 캐롤린 머천트, 개정판 『래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72쪽.

10) 위의 책, 74쪽.

업적 활동은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자연에 대한 유기체적 시각과 틀로서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sup>11)</sup> 지리상의 발견으로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으며, 무역 또한 점점 더 확대 되면서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민사회가 형성된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 초엽,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등에 의해 이룩한 천문학과 물리학 업적은 근세 세계관의 발생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문제인, 지식을 획득함에 있어서의 실재와 현상, 자연과 경험, 이성과 감각의 관계에 대하여 희구(希求)하도록 철학자들을 자극했다.<sup>12)</sup>

베이컨은 중세에 강요당했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실험과 엄밀한 관찰,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귀납의 자료들을 통해 자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세기 이후, 그러한 ‘베이컨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서양의 과학지식은 팽창 발전되어 오늘에 이른다. 자연의 어떤 부분이라도 제한 없이 탐구하여,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으로부터 비밀을 더 들추어내게 된 것이다.’<sup>13)</sup> 베이컨의 과학사상은 그 때까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어머니 자연을 보호하던 금기들을 한갓 미신으로 취급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여성과 자연에 있었던 생산의 기여와 창조적 힘을 빼앗아 가부장적인 남성의 통제 하에 두고자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sup>14)</sup>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지식의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론적 회의의 결과로, 모든 실재는 사고, 감각, 의식이 포함된 마음(mind)과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 육체(body)라는 두 가지 기본 실체유형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사유 주체인 마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기계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단순한 물질로 취급되었다. 동물과 식물은 살아 있긴 하지만, 기계 또는 ‘사고(思考)없는 야수(野獸)’로 보았다.<sup>15)</sup>

11) 위의 책, 75~76쪽 참조.

12) 스티어링 P. 램프레이트, 개정판 『서양철학사』, 김태길 외 옮김, 을유문화사, 2010, 294~304쪽.

13)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77쪽.

14)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외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0, 61~66쪽.

15) 조셉 R. 데자르탱, 『환경윤리』,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163~164쪽.

그래서 그는 문제가 부분들로 분석 가능하며, 부분들은 복잡한 환경적 맥락을 제거하고 일련의 규칙들에 따라 조작됨으로써 단순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이 자연을 지배하는 힘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를<sup>16)</sup>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 입장으로 분리하고 대상화 시키는 그의 사상은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을 거치면서 기계론적 세계관(Mechanistic World View)으로 자리잡게 된다. 뉴턴 물리학은 만유인력과 관성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등을 바탕으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지구와 천체의 역학을 종합해 내었다. 그가 제시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인식능력을 한층 더 고양시켰으며, 물리학의 논리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였다.

17세기 철학과 과학이 제기한 실재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기계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듯, 실재에 대한 기계론적 구조도 원자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 법과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인간은 최대한의 권력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조작과 통제를 통해 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기계론적 세계관은 “유기체적 자연 묘사에서 핵심적인 것이었던 공간적 위계, 가치, 목적, 조화, 질, 그리고 형태라는 개념들을 없애 버리면서, 물질 인과운동인 물질과 힘만을 남겨 두었다.”<sup>17)</sup> 또 ‘기술적 해결책’으로 생태학적 기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서, 기술, 산업, 정부의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이 되었고, 존재, 지식, 방법론의 구조에 대한 가정들은<sup>18)</sup> 인간에 의한 자연 조작과 통제를 가능케 만들었다.<sup>19)</sup>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탐구를 통해 엄밀하게 재단되는 선형적(linear)이고 기계적 사고가 17세기 문화와 철학자들을 거

16) 근세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국 민족, 백인, 남성, 정상인만 포함한다.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의 수탈이 서슴없이 자행되었으며, 자연보다 우위라는 입장에서 자연을 도구적으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환경파괴가 이뤄졌다.

17)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90쪽.

18) 이 가정은 다음과 같다. 1.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존재론적 가정). 2.우주는 자연적 질서이다(동일성의 원칙). 3.자연 세계에서 지식과 정보를 추상해 낼 수 있다(맥락 독립성의 원칙). 4.어떤 문제는 수학에 의해 조작 가능한 부분들로 분석될 수 있다(방법론적 가정). 5.감각 데이터들은 이산적이다(인식론적 가정). Carolyn Merchant, *Death of Nature*, Harper & Row, 1980, 228쪽.

19) 캐롤린 머천트, 개정판 『래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81쪽.

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17세기 기계주의 과학자들은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사실과 가치, 윤리와 일상생활 등 서로 연결시켜 인식해야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물질적으로 분석(analysis)되어 이해된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극대화되어, “오늘날에도 산업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자연 지배의 윤리를 정당화시키면서 지속되고 있고, 많은 환경문제들의 근저에 깔려있다.”<sup>20)</sup>

스털링(S. Sterling)은 이러한 ‘기계론적이고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생태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과 체계들 상호관계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는 관점에서, 윤리와 일상생활이 통합된 ‘생태학적이고 전체론적인 세계관(Ecological/Holistic World View) 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1)</sup> 유기체적 세계관<sup>22)</sup>에서 지배적 세계관으로 이행한 후, 인간은 자연을 조작하고 실험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식과 능력은 키웠으나, 현대문명의 부산물인 환경오염도 동시에 만들어왔다.

라이프니츠(Gottfrid Wilhelm Leibniz)<sup>23)</sup>는 데카르트 학파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는 단자론(monadology)에서, 단자(單子, monad)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며, 단자 하나하나가 전 우주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자 속에는 우주에 있어 존재하고 발생하는 모든 사상에 관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자연의 사물이나 인간과 동물, 식물이 모두가 동등한 단자의 소산물이라

---

20) 위의 책, 100쪽.

21) 조용재 외, 『환경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2003, 334~336쪽 참조.

22) 유기체적 세계관의 전통은 기계론적 세계관이 서구를 지배한 17세기 이후에도, 낭만주의의 형태로, 미국의 초월주의, 독일의 자연철학, 맑스의 초기 철학 등 다양한 변형으로 남아있다. 20세기 들어서는, 스머츠의 전체론,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1970년대의 생태운동, 데이비드 봄의 홀로무브먼트(holo movement) 등에 의하여 다시 등장하였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의 양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기도 하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 가치 등을 재평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의 책, 99~100쪽.

23) 라이프니츠는 정신적인 실체만이 오직 존재한다는 ‘형이상학적 유심론’을 주장했다. 그는 나눌 수 없는 것만이 모든 실체들의 필연적 특성이며, 실체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실체는 다른 모든 실체로부터 오는 간섭을 물리치고, 그 자체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지키는 연장이 없는 실재, 다시 말해 비물질적 실재로 정의된다. 그 관점에서 도달한 결론이 단자론(單子論)이다.

면, 라이프니츠는 생명이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비록 단자에 창이 없어서 상호간에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 또한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나, 인간이 비인간존재보다 특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우주와 자연과 인간은 조화로운 공동의 연대에 의해서 산출되고, 그러한 공동의 속성인 단자를 갖고 있음을 낙관적인 합리론으로 풀고 있다.<sup>24)</sup>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 *Leviathan*』(1651)에서 “자연은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만인은 만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나,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았다. 왜냐하면 홉스가 의미하는 자연의 상태는 무정부 상태로서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무질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공동의 동의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싸우고 죽일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가 평화와 방어’를 맡기고 있는 인공적인 질서, 즉 ‘리바이어던’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홉스가 ‘투쟁’, ‘무정부’라 표현한 자연상태는 특정 지배자가 없을 뿐이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서 각 개체가 이해되고 있으며, 개별 생물의 특질들은 생태계 내에서 각자 고유한 삶의 방식들이 있다. 언뜻 보기에 무정부 상태 속에서 먹고 먹히는 것 같지만, 단순히 ‘투쟁’만 하는 아수라장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천이(遷移)나 도태(淘汰), 먹이 사슬 등은 오랜 세월을 걸쳐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며,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엄격하고 조화로운 질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철학자로서의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은 국가권리에 종속되는 것일 뿐이었다. 또 홉스도 기계론을 주창했는데, 데카르트와 달리 감각과 기타의 심리현상들을 운동의 결과로 보거나, 신체적 운동 자체와 동일하게 생각했다. 물질과 운동의 기계적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정신적 실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연과 개인을 별개의, 그러나 평등한 사회적 원자들로 간주하는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7세기의 기계론적 과학에 영향을 끼쳤고,<sup>25)</sup> 그러한 세계관이 이룩한 과학문명은 ‘유기적 전체로서 살아있는 자연

24) 신승철, 『눈 밖에 난 철학 디지털로 본 철학』, 리좀, 2005, 49~50쪽 참조.

25)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112~113쪽.



세계'를 '생명 없는 차가운 거대 기계'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런 점에서 자연의 본질을 오해한 기계론적 세계관은 처음부터 환경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

## 2. 산업문명과 인간중심적 환경철학

지금의 생태위기를 가져온 산업 문명을 이끈 세계관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머천트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문명을 이끈 것은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는 자기중심적 윤리의 산물로서, 대체로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반영한다.<sup>26)</sup> 린 화이트 2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sup>27)</sup> 성경구절이,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8)</sup> 특히 청교도 정착민들에 의해 이뤄졌던 미국 초기 경제발전의 경우, 위와 같은 성서의 구절들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된 지도윤리가 되었다. 존 퀴시 아담스는 1846년 미국이 오레건으로 팽창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목표가 “황무지에 장미가 피어나게 만들고, 법률을 확립하고 대지를 정복하여 증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전지전능하신 하

26)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107~108쪽.

27) 『한영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2002, 창세기 1장 28절.

28)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화이트 2세의 의견에 대해, 배석원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유대-그리스도교적 전통은 신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을 뿐, 그 소유권은 신에게 있으므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것은 유대-그리스도교의 근본정신과 배치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유대-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을 객관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기계론적 자연관이 대두되고,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신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신의 명령은 유대-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사용되는 ‘지배권’의 개념을 오해하여 생겨난 잘못으로서, 유대-그리스도교적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전통 안에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배석원, 『인간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의 다윈론』, 『철학논총』 제30집, 새한철학회, 2002, 참조.

나님의 최초 뜻에 의해 명령받았다”<sup>29)</sup>라며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신도들로서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범이다. 이는 신의 명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경을 정복해야할 대상으로 접근하게 했다. 자기중심적 윤리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해 역사적으로 강화되어 간 셈이다.

홉스의 진단처럼 본성적으로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의 선이 점점 더 극대화되었으며, 개인에게 좋은 것이 사회에도 선이 된다고 보는 자기중심적 윤리의 입장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더 우세해져갔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관점이 프로테스탄트윤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서구산업사회를 자본주의로 번성하도록 이끌었다. 이후 산업혁명이 가져온 과학의 비약적 발전은 생산력을 극대화시켰고, 자본주의는 급속하게 팽창하여 오늘날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은 윤택한 삶만이 아니라 환경파괴와 오염, 자원전쟁과 생태위기, 빈익빈부익부의 사회구조라는 근본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사실상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환경적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성장주의 체제로서, 개인은 그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창출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원료를 구해서, 이를 상품으로 가공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일련의 경제운영 순환주기가 빨라질수록 이윤도 함께 늘어난다. 그러다보니 경제운영 흐름을 다각화하여서 신상품 개발주기와 생산유통속도를 더 빨라지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유도되고 있다. 일회용품 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듯이, 문제는 산업문명의 각 단계마다 사용되는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흐름은 자급자족과 협력을 통해 큰 자아실현이 증가한다는 심층생태주의의 생태지혜 T의 규범에 결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구 생명자원들은 제한적이라는 전제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자기중심적인 영리추구를 통해 생존해야하는 기업과 물질적 풍요에 길들여진 개인의 이해가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피할 특별한 길이 모색되지 않는 한, 더 가중될 거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29)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108쪽.

전체를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선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환경윤리의 입장은 20세기에 이르러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sup>30)</sup>이라는 결과물을 산출한다.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은 그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생태계의 부양능력을 어떻게 넘어서게 되는가를 잘 묘사하였다. 홉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경제생활의 형태이고 공유지는 시장과 같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있는 목초지를 제시한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목초지에서 가축들에게 자유로이 풀을 뜯게 할 수 있다. 소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목초지의 풀도 사라진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 모두는 자기 가축의 수를 늘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목초지의 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축에게 풀을 먹임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풀이 줄어들어 따라 오는 손해에 대해 미처 자기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늘어나는 소로 인해 한정된 목초지에서 양육되는 소는 점점 더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황폐화된 공유지만 남게 되는 것이다. 공유지도, 더 이상 먹이가 없는 소도, 인간도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윤리가 공공의 선과 충돌하게 되면 사회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재산과 달리, 특정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개입을 제한하는 배제성(excludability)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취하려는 경합성(rivalness)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하딘은 이런 비극적인 공멸을 피하려면, 생태계의 부양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길을 제시했다.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

---

30) ‘공유지의 비극’은 가렛 하딘이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논문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공멸을 가져온다고 경고하였다. 그는 1974년에는 ‘구명선에서의 생존’에서 구명선의 윤리를 설명하면서 인원이 초과된 배가 침몰할 때, 구명선의 수가 부족하게 되는 데, 이때 구조되는 사람은 스스로를 챙길만한 힘의 소유자라는 식의 인간 이성에 근거한 개별적인 선택이라는 자기중심적 윤리를 표방했다. 1974년 하딘에 따르면, 선진국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구명정이나, 제3세계국은 과잉승선으로 좌초중인 배로서, 이들 제3세계국민들이 선진국의 구명보트로 들어가기 를 희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딘은 더 이상 이들을 태우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딘의 이러한 주장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위기의식이 낳은 비윤리적 해법이였다.

속하고 활발하게 정보가 소통되고, 국가에 비하여 소규모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 (community)가 공유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기를 권했다.<sup>31)</sup> 그것이 시장 만능의 위험과 정부 통제에 따른 비효율도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심층생태주의에서는 공생(symbiosis)을 강조한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직접행동을 제안 받는다.

심층생태주의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초기 환경철학에서는 자연 그 자체의 안위보다는 인종(race), 인류(mankind)만을 우선 고려했다. 인간만이 생명권, 건강권, 인격 존중권, 복지권 등의 권리를 가진 도덕적 주체였다. 인간에게는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부여했으나, 다른 실체에게는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인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만을 인정했다. 그런 면에서 인간중심주의 (anthropocentrism)는 인간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사결정과 개발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어떤 기술을 시행할지, 또 의사결정에 있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방향을 지시해준다.<sup>32)</sup> 그 틀 중에 하나가 19세기의 벤담(Jeremy Bentham)과 밀(John Stuart Mill)이 주창한 공리주의(utilitarianism)이다.

오늘날 환경정책에서도 공리주의를 반영한 사고는 매우 영향력이 있어서, 공공정책을 시행하거나 규제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sup>33)</sup>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한 많은 욕구를 충족하여서,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느끼는 쪽을 선택하는 공리주의 세계관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는가 하는 공리(utility)에 의해, 소수의 사회구성원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쪽으로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은 성서의 황금률(Golden Rule)<sup>34)</sup>에 공리주의 윤리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전체의 선’과 연관시켜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무를 갖는다고 논의한다.<sup>35)</sup>

그렇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좋은 결과가 없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선하더

31)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 외 옮김, 랜덤하우스, 2010.

32)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117~118쪽.

33) 조셉, R. 데자르탱, 앞의 책, 54쪽.

34) 성서의 황금률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영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2002년, 마태복음 7장 12절.

35)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114~116쪽.

라도 잘못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반면, 옳지 않은 동기라도 결과만 좋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인간행동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윤리적으로 과연 옳은 선택인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또 정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비교하고 측정, 양화하는 과정이 꼭 요구된다. 벤담은 모든 쾌락과 모든 고통의 양은 각기 그 쾌락과 고통을 강도, 지속성, 발생의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그리고 범위라는 일곱 가지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만 올바르게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intrinsic)인 행복은 사실상 정확한 측정이나 양화를 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인간을 똑같은 형태의 기계처럼 보는 시각으로서, 각 개인의 삶의 목표나 욕구, 추구하는 행복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나 측정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의 질(質)이 제각각 다르고,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형편에 따라 얻게 되는 행복의 양(量)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칸트(Immanuel Kant)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 존재로서 행위의 동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이성적인 준칙은 ‘정언적(categorical)’이고 ‘보편적(universal)’인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을 수단이나 대상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공리주의가 부정의를 내포함을 시사한다. 결과에 의하여 판단되는 공리주의는 미래를 확증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범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체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개발위주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수에 속하지 못한 일부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인간 이외의 개체들의 권리는 거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밀의 언급 속에도 있듯이, 다소 이상적이긴 하나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준칙이 전제될 때, 공리주의의 부정의와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한편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여 맹목적인 인간우월주의라 비판받는 공리주의를 재해석하여 ‘확장된 공리주의(extended utilitarianism)’를 통해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있다.<sup>36)</sup> 즉 기존의 공리주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

36) 윤용택, 「환경윤리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공리주의」, 『철학연구』 제71집, 대한철학회, 1999.

의 비도구적 가치들을 고려하고, 도덕적 고려대상의 폭 또한 시공간적으로 확장 시켜서 바라본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확장된 공리주의는 기존의 공리주의에서 추구하는 행복 증진을 위해서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양을 줄이는 문제해결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환경정책들이 현세대의 행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미래 세대의 고통을 도외시 한다고 분석하며, 유한한 환경자원에 관한 정책이 지역적이고 단기적이며 현재적인 입장에서만 결정된다면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리주의 분배정의 원칙에 따라 현세대와 가까운 미래 세대에게는 ‘복지총량 극대화의 원리’를, 먼 미래세대에게는 ‘고통총량 극소화의 원리’를 환경정책에 적용하여 실시한다면, 확장된 공리주의가 제 역할을 해낼 거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긴 하나, 심층생태주의에서 문제의 근원을 보다 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점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온 환경에 관련된 주요 시각은 20세기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댐과 저수지 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면서 보존(保存, conservation)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연 상태로 최대한 보전(保全, perservation)해야 한다는 두 입장이 상충하는 논의였다.<sup>37)</sup> 1913년 댐을 건설하기로 최종결정할 때까지 10여년에 걸친 이 논쟁은 결과만 가지고 보면 보존주의자의 승리였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잇는 ‘보존(保存)’에 대항하여 야생지를 그 자체로 ‘보전(保全)’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가 널리 확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환경운동과 환경철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37) ‘conservation’과 ‘preservation’의 용어번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사람이 손을 대어서 보호관리하는 ‘conservation’은 보존(保存)으로, 손을 대지 않고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두는 ‘preservation’은 보전(保全)으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 형태는 변화하나 그 양이 결코 변하지 않는 ‘energy conservation’은 에너지 자체가 원래대로 존치(存置)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保存)’으로 번역하고 있고, 화학분야에서도 쉽게 변질되지 않는 물질의 특성을 ‘보존성 conservative property’이라 옮기고 있다. 영한사전에서도 conserve를 ‘보존하다’로 대부분 옮긴다. 이도원, 『떠도는 생태학』, 범양사출판부, 1997, 264~265쪽. 참조.

당시 미국 산림청의 청장인, 기포드 핀쇼(Gifford Pinchot)는<sup>38)</sup> 산림지역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관리하는 의미로 ‘보존(保存)’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헤츠헤치 계곡을 수몰시키자는 계획안에 대해 지지를 밝히면서, 댐건설을 통해 수백만 도시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몇몇 소수의 도보여행자들과 자연 애호가들을 위해 계곡을 자연상태로 두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자원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부 소수가 독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최장기 동안에 최대다수의 최대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공공정책을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핀쇼의 환경보호운동은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핀쇼는 대중의 필요와 사용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해 인간이 적절히 개입하면서 보존해야 한다는 철저한 인간중심주의자였다.

반면 시에라 클럽의 창시자이자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뮤어(John Muir)는<sup>39)</sup> 헤츠헤치 계곡을 ‘보전(保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뮤어는 헤츠헤치 계곡을 신이 지은 성당으로, 댐 옹호자들은 신전을 파괴하는 자들로 간주하며, 자연자원을 인간의 소비를 위한 단순한 상품으로 보는 시각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뮤어는 야생의 자연은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서,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했다. 또 동시에 현대생활의 안식처로서, 심미적 경험을 위한 장소로서 도구적 가치도 주장했다. 그러한 뮤어의 생각은 뮤어가 요세미티의 마루터기에 앉아서 느낀 영감을 담은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장엄하게 드러난 신의 능력 앞에서 겸허하게 굴복하고, 이 신성한 책에서 어떤 교훈이라도 배우기 위해 영원히 애쓰면서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을 포기한다.  
... 이 축복받은 산은 신의 아름다움으로 꼭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시시한 개인

38) 기포드 핀쇼(1865~1946)는 미국 산림 보존(conservation)의 선구자이다. 체계적인 임업 연구를 최초로 시작했으며, 산림보호운동을 널리 일으켰다.

39) 존 뮤어(1838~1914)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자로서 20세기 환경보전운동의 선구자이다. 요세미티를 비롯한 세쿼이아, 그랜드캐니언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1892년에는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을 창립하여 평생을 지구 생태계보전을 위해 힘썼다. 존 뮤어, 『나의 첫 여름』, 김원중 외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8.

적 소망이나 경험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으며, ...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격렬한 무아경의 기쁨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수한 수정처럼 순일(純一)의 상태가 되는 듯하다.<sup>40)</sup>

자연은 다른 무엇이 아닌 자연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은 자연이 베푸는 자비심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경배자, 청지기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sup>41)</sup>

존 뮤어는 1892년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을 창립하여, '나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라는 클럽 구호를 걸고, 야생지 보전운동을 이어갔다. 그러한 그의 생태중심적인 삶과 환경운동에의 헌신은 뒤이어 나온 '근본적 생태주의'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생태주의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인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위의 뮤어의 글에서도 표현되었듯이, 그의 시각은 생물중심에서가 아니라 신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경배자'이며, 신의 뜻에 합일되게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입장이었다. 자연보호운동이나 야생지를 보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 여겨서, 보호관리하는 보존(保存, conservation)보다는 자연상태 저 그대로 두는 보전(保全, preservation)이 인간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라 믿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존 뮤어는 자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생태적 인간중심주의자였다고 칭할 수 있다.

오늘날 생태위기가 급격하게 만들어진 과정을 짧게 돌아보면,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산업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생태계의 자정능력과 복원력을 넘어서는 인구의 도심 집중현상을 가져왔다. 19세기가 되자,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공업국들부터 도심을 중심으로 각종 오염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sup>42)</sup> 20세기는 세계 1, 2차 대전 등 혁명과 전쟁으로 어수선했

40) 위의 책, 140~141쪽.

41) 위의 책, 277쪽.

42) 한 예로,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 공해병을 들 수 있다. 이타이이타이 이병은 도야마현 인근에 있는 기후현 가미오카에 있는 미츠이 금속광업의 가미오카 광산에서 아연을 제련할 때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강에 흘려보냄으로써 생겨났다. 하류에 위치한 도야마현의 진즈강에까지 유입된 카드뮴



으나,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를 맞는다.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산업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가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거라 모두 생각했다. 삶은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급격한 성장주의로 인한 문제들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 탓이었다. 산업성장에 발맞춰 자연자원과 화석에너지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대기, 수질, 토양 등 전 영역에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sup>43)</sup> 또한 기계적 대량생산과 그에 따른 오염을 더 촉진시켰다. 환경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경고하는 환경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는 소위 ‘생태혁명’(Ecological Revolution)이라 불리는<sup>44)</sup> 시기로서 철학적 반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환경철학과 환경윤리에 대한 논의가 싹텄다.

특히 카슨(Rachel Carson)은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을 통해 당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강력한 살충제인 DDT의 위험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자연을 생명 없는 물질처럼 인식하여 지배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이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자연의 역습(Nature Fights Back)’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몫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또 다른 길(the other road)”을 모색하는 것이다.<sup>45)</sup>

---

은 이 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카드뮴에 중독되게 하였고, 그 결과 많은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카드뮴에 중독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내분비계에 이상을 일으키고 칼슘 부족이 일어나 뼈가 매우 약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기침을 하는 등의 가벼운 자극에도 골절되거나 휘어진다. 당시로서는 원인을 알지 못하여 병명조차 일본말로 ‘이타이이타이’ 즉 ‘아프다아프다’ 병이다.

43) 1500년경 4억~5억 명으로 추산되었던 인구는 1820년 10억 명, 1900년 16억 명, 20세기 말에는 60억 명에 근접했으며, UN은 2011년 10월31일을 ‘인구 70억의 날’로 정했다.

44) 생태혁명기를 거치며 환경철학이 생명중심 및 생태중심으로 급회전하게 된다. 헨리 소로우(Henry D. Thoreau), 존 뮤어(John Muir), 로렌스(D.H.Lawrence),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 엘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조지 오웰(George Orwell), 테오도르 로작(Theodore Roszak),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 등의 저작과 글들은 심층생태주의 운동 탄생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태주의적 종교와 원시적인 삶의 형태 그리고 도교나 선불교, 성 프란치스코(Saint Francis of Assisi), 스피노자(Spinoza) 등에 기원을 두고 있는 낭만주의적이고 자연지향적인 반문명적 운동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 3. 탈인간중심적 환경철학

#### 3.1 동물해방론

기존의 윤리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보다는 개인 또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런데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카슨의 지적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윤리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봐야할지 등을 새로운 윤리학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환경윤리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확장된 기회는 드디어 동물의 입장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게 되었고, 톰 레건(Tom Regan)과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두드러진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간을 위한 자연’에서 ‘자연 속의 인간’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방향 전환도 있었다. 인간이 아닌 자연물에도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게 되었고, 인간중심을 넘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싱어는 윤리학의 대상을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까지 확장시켰다. 싱어 이전에도 동물들에 관한 윤리적 의무에 대해 그 필요성을 요청하며, 동물을 소중히 하자는 인식이 있었으나, 싱어에 와서 비로소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철학적인 고민을 통해 재설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존재라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지력(sentience)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감지력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익관심(interests)을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유정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쥐는 돌멩이와 달리 발에 차이면 고통을 느낀다. 따라서 쥐는 고통을 느끼는 것에 이익관심을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할 책임이 있게 된다. 다만, 채찍으로 말의 등을 때릴 때, 말이 느끼는 고통과 아이의 얼굴을 채찍으로 때릴 때, 아이가 경험하는 고통은 말에 비하면 그 감수능력과 고통의 양에서, 아이가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

---

45)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이길상 옮김, 탐구당, 1990. 참조.

은 서로 다른 이익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싱어는 똑같이 고통을 느끼지만 그 여건에 따라 동물은 인간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았다.

싱어는 흑인이나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게 인간과 차별된 도덕적 대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sup>46)</sup> 그는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간에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동물해방론을 주장한다. 쾌락은 더 키워주고 고통은 더 줄여주는 일을 목적적 선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윤리적 의무는 전체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무심히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일은 그만뒀어야 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서 싱어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비동물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공장식 사육(factory farming)의 실상을 거론하고 있다.

날개 한 번 펴보지 못할 정도로 좁은 사육장에서 암탉들은 땅을 긁을 수도 둥지를 지을 수도 없다. 철망으로 된 닭장의 바닥은 암탉에게는 불편하지만 청소비용이 절감된다. 바닥은 달걀을 쉽게 모으기 위해 경사지어 지어져 있다. 닭의 부리는 쪼아대는 본능으로 서로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려서 잘려진다. 자연상태의 가금류의 본능이 공장식 사육에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억제되고 있다. 어린 송아지들도 인간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육질과 연한 색조를 띄게 하기 위해 고통스런 상태로 길러진다. 부드러운 육질에 불필요한 근육을 만들지 못하도록 눕지 못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갇혀 지낸다. 우유 빛이 감도는 고기가 값이 더 나간다는 이유로, 혈색이 없도록 제한된 먹이만 공급받으며 사육되어서, 송아지들은 빈혈과 섬유질 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sup>47)</sup>

인간의 이러한 공장식 사육 행태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동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동물들을 생명 없는 물건처럼, 기계처럼 다루는 것이다.<sup>48)</sup> 우리가 싱어의 동물해방론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46) 조셉, R. 데자르댕, 앞의 책, 191~194쪽.

47) Peter Singer, "All animal are equal", *Environmental Philosophy :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Prentice Hall, 2005, 30~31쪽 참조.

48) 위의 글, 25~37쪽 참조.

요청받게 되는 것이다.

레건도 동물에 대한 인간의 여러 행태, 말하자면, 육식과 사냥, 애완용 동물사육, 동물원과 동물서커스, 그리고 과학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동물 실험 등등을 강하게 비난했다. 레건은 이들 행위가 동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가진 고유의 가치(inherent value)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공리주의에 입각해 고통보다 쾌락이 많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싱어에 항의하며, 아무리 쾌락의 총량이 많아지더라도 동물을 자원(resources)로 보는 인간의 관행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삶의 주체(subjects-of-a-life)인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주는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live)’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념, 욕구, 인지,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미래 의식, 쾌락과 고통 등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선호와 복지에 대한 미래관심,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행위능력,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혹은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 등을 갖고 있는”<sup>49)</sup>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레건은 일부 포유류들은 이러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레건은 고유의 가치 혹은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칸트처럼 자율적 행위를 할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비판한다. 가령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를 자신의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행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한다면, 도덕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나 정신지체아, 혼수상태의 인간 등은 도덕 행위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우리가 그들을 도덕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그들이 도덕적 행위는 하지 못하나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이기 때문이다.<sup>50)</sup>

이렇게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철학자들이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도덕적 행위자들에게서만 찾

---

49) T.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243

쪽. 조용재 외, 『환경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2003, 200~201쪽에서 재인용.

50) 죠셉, R. 데자르탱, 앞의 책, 198쪽.

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도덕적 무능력자들이 이성적 판별력이 없다고 우리가 그들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사냥감이나 오락물로, 혹은 노예처럼 함부로 대한다면, 원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레건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의 삶을 사는 데’ 요구되는 자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 동물들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상응할 만큼 존중하는 것은 정의로운 마땅한 일이면서, 명백한 의무인 것이다. 상어의 동물해방론이나 레건의 동물권리론은 그동안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만 행하였던 동물사육과 실험, 동물대상 스포츠 등의 행위들에 대해, 동물의 이익관심을 고려한 행동조절을 어느 정도 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적절한 관계, 서로 다른 종들과의 관계, 동물과 서식처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 땅과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입장에 머물러있다. 때문에 환경철학은 전체론적이고 탈인간중심적인 전환을 요구받는다.

드디어 환경철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통윤리를 확대하는 식의 윤리적 확대주의(ethical extensionism)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철학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윤리적 확대주의는 그 원리와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위계적이고,<sup>51)</sup> 개체주의적이며,<sup>52)</sup>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받았다. 도덕적 지위나 권리와 같은 좁은 범위의 논의에서는 지구온난화, 오염 등 다른 환경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 채, 비판일변도에 머물렀다.<sup>53)</sup> 그래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하나의 원리나 이론을 제시하기를 바라게 되었고, 특히 내재적 가치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관심으로 논의가 전환되었다.

내재적(intrinsic)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도구적(instrumental) 가치와 구별된다. 인간이 자연 대상들에 부여하는 가치와는 별개의, 자기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는 그동안 인간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십분

51) 예를 들어, 고등동물에게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존재들은 제외된다.

52) 윤리적 확대주의는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는 생태학의 특성과 맞지 않게, 개별 동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는 보장하나, 식물, 종, 서식지, 관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도덕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53) 죠셉, R. 데자르탱, 앞의 책, 215쪽.

이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최근의 환경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행위의 규칙이나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과 성향의 측면에서, 다시 말해,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virtue) 윤리로의 회귀를 의미한다.<sup>54)</sup>

### 3.2. 생명의경사상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모든 것은 본성적(natural)이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특유의(distinctive) 활동을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본성적인 활동 또는 기능을 잘 수행할 때 훌륭한 것(good)이 된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여 자연의 목적론적(teleological)인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55)</sup> 그런 면에서 생명은 환경내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이며, 그 자체 내 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일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보내면서, 생명의 선과 자연의 선을 연결시키는 세계관으로부터 이탈된 현대 산업사회의 윤리적 질병을 진단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윤리적 처방으로서 ‘생명에의 외경(畏敬, reverence)’을 제시하였다. “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들의 와중에 있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sup>56)</sup>라는 사실을 자각한 슈바이처는 ‘생명에의 외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모든 살려고 하는 의지에게,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에의 외경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또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경험한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

54) 조셉, R. 데자르맹, 앞의 책, 228쪽.

55) 이에 대한 반론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연물이 일정한, 고유의 목적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 둘째 ‘어떤 것이 자연적(natural)이다’라는 사실에서 ‘그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 셋째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개념은 목적(telos)이나 의도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연에서 발견되는 기본구도를 잘 설명해준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질서는 신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종들의 활동이고, 이는 특히 자연선택과 임의적인 변이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위의 책, 51~53쪽.

56) “I am life which wills to live, in the midst of life which wills to live.” Albert Schweitzer, *Our of My Life and Thought*, (A. B. Lemke 역, New York: Holt, 1990), 130쪽. 조셉, R 데자르맹, 앞의 책, 225쪽 재인용.

증진하며, 생명을 고양시키는 것을 선으로,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에 해를 끼치며,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악으로 본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다.<sup>57)</sup>

슈바이처에 있어서 생명외경은 갈등상황에 적용하거나 우리행동을 결정해 주는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이며, 존중을 받는 내재적 가치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슈바이처 자신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조차 죽이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의사나 짐승을 죽이는 도축업자, 그리고 나무를 자르는 농부 등 부득이 생명을 죽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슈바이처는 그러한 일들이 어쩔 수 없이 행해져야 한다면, 채무의식을 느끼면서, 채무의식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때때로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외경의 태도는 인간의 자아실현적인 목적(telos) 또는 목표(goal)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성품(character traits)이자 성향(dispositions)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중매체에서는 연일 죽어가는 생명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진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자연존재인 생명들을 파괴하는 생명경시의 악덕인간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들이 부당한 죽음을 맞고 있다.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목적적 가치가 이기적인 누군가의 비윤리적 태도로 인해 도구적 가치로 전락하여 무의미하게 소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유대가 재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슈바이처는 생명외경의 태도를 통해 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를 제안하고 있다.

폴 테일러(Paul Taylor)는 우리가 지구생명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야생 식물과 동물에 빚지고 있다는 분명한 도덕적 임무가 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선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킬 도덕적 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Nature*』(1986)<sup>58)</sup>에서 슈바이처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

57) 같은 곳.

58) Taylor, Paul W., *Respect for Nature :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Princeton, 1986.

생명의경, 자연존중의 입장을 발전시켜 가장 철학적으로 정교한 형태의 생명중심 윤리(biocentric ethics)를 확립했다. 모든 생명의 본래적인 가치를 토대로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자연 존중 태도의 기저를 이루는 신념체계를 테일러는 ‘자연에 대한 생명중심적 관점(the biocentric outlook on nature)’이라고 부른다. 테일러는 네 가지 견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간은 지구의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둘째, 모든 생물은 상호의존의 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셋째, 각 유기체는 목적론적 생명의 중심이다. 넷째,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그는 자연에의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teleological-center-of-life)’이라고 표현했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표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sup>59)</sup>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는 그들 자신만의 선(a good of its own)과 고유의 가치(inherent worth)<sup>60)</sup>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테일러는 아이와 모래더미를 예로, 자기 고유의 선을 갖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구분한다. 부모가 아이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서 증진된다면 아이는 이득을 얻지만, 아이의 선이 좌절된다면 손실을 입는다. 그러나 모래는 손실도 이익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실제적 선과 외견적 선 그리고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를 구분한다. 나의 선이라고 나에게 주관적으로 보였던 것이 실제 객관적으로는 나의 선이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견적, 주관적 선 개념을 무시함으로써, 믿

59) 죠셉, R 데자르탱, 앞의 책, 235쪽.

60) 여기에서 일반적 선의 의미는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성장의 최적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주어진 생태계 안에서 그들 생물종 무리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생태학적 작용 아래서 보다 더 크게 실현되는 정도이다.



음, 이익관심, 욕구를 소유한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대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기 고유의 선을 갖는 존재를 테일러의 이론체계 내에 포함시켰다.

테일러는 우리가 나비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나비에 이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의 선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이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인식과정의 최고 정점은 유기체의 관점에서의 진짜 이해의 성취이다. 객관적 지식에서부터 특성 인지까지 그리고 특성 인지에서부터 유기체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하는 데까지 이 발달은 개별 생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의식을 고조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 자체를 보존하고 그 자체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 자체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목적론적 생명중심으로서 유기체의 독특함을 파악한다. 각각의 종은 그 종의 선을 결정해주는 뚜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에게 선이 되는 것이 다른 종에게도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딧물은 진딧물로서, 무당벌레는 무당벌레로서 자기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고, 성장, 발전, 생존, 번식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명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목표지향적이다. 이러한 테일러의 생각은 슈바이처의 생각과 유사하다. 개미보다 작은 생명체일지라도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종을 번식하려 노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단히 적응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 한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 과정에는 생명체의 '살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데, 각각의 생명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든 간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방향, 목표, 텔로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상식을 넘어서서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생명중심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자신의 선을 갖고 있다는 기술적 주장에서, 고유의 가치(inherent worth)를 소유하는 규범적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존중을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ultimate moral attitude)'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생명중심적 관점은 자연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sup>61)</sup> 생명체를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존중’의 태도를<sup>62)</sup> 취하는 것으로, 자기 고유의 선을 갖는다는 그 이유에서 다른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존재의 선을 자기의 행위근거로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실천하는 것은 당장 다른 생명체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비윤리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서 테일러는 인간을 포함해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의식주라는 기본적(basic) 필요를 위해 다른 생명체의 생존을 해치는 것은 자연의 순리로서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악어핸드백과 같이 없어도 되는 부수적(nonbasic) 필요를 위해 동식물의 생존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루에도 수백 종의 생명종이 멸절하는 환경위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생명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세계관이 즉각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대부분 부수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재를 양산하며 구동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본질적 필요와 부수적 필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지 문제로 남아있고, 생태계 관리와 관련한 생명평등주의의 한계도 있다.<sup>63)</sup>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가 제대로 적용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탈인간중심주의의 입장에서 고유한 생명의 가치를 철학적 논증과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간과하였던 미소(微小) 생명에 이르기까지 지

---

61) 테일러는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예를 쓴다. 그는 종의 구성원들이 많은 점에서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차이가 어느 한 종의 구성원을 다른 종의 구성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종들 사이의 차이가 인간이 다른 종의 구성원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없는 합리성과 도덕적 작용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또한 인간이외의 종의 구성원들이 인간에게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비둘기의 귀소능력, 치타의 속력, 양과 소의 반추능력과 같은 특성들은 인간에게 없는 것들이다. 배석원, 앞의 글 참조.

62) 테일러는 자연존중의 태도에서 일반적으로 불침해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나온다고 본다. 이들 네 가지 규칙들 간에 우선성의 문제에서는 불침해의 의무가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며, 주의 깊게 대처한다면, 나머지 세 가지 규칙들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Paul Taylor, “The ethics of Respect for Nature”, *Environmental Philosophy :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Prentice Hall, 2005, 67쪽.

63) 김명식, 『영미권 환경철학의 역사』, 『환경철학』 제3권, 한국환경철학회, 2004.

구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과 평등한 생명을 설득적으로 입증하였다.

#### 4. 심층생태주의의 태동

1962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대중에 처음 알린 카슨(Rachel Carson) 책 『침묵의 봄 *Silent Spring*』<sup>64)</sup> 이후, 로마클럽(Rome Club)도 1972년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세기 초중반부터 불어 닥친 환경문제는 중후반 들어서자 전 지구적 당면과제가 되었다. 1892년 산림자원을 보존하자며 결성된 환경단체 시에라클럽(Sierra Club)처럼, 곳곳에서 여러 환경운동단체가 만들어져 활동을 이어갔다. 또 윌리엄 워즈워드(W. Wordsworth)와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H. D. Thoreau) 등 일련의 문학가들도 자연 생태계를 그 자체로 보존하자는 목소리를 내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제1차 UN인간환경회의가 열렸다.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생태위기는 필연적으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sup>65)</sup>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의 하나로서 생태철학 또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중에 생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관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근본적 생태철학(radical ecology)이 태동하였다. 그 생태주의를

---

64) 이 책에서 카슨은 합성화학약품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처음 도입된 이래, 약품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살포가 있었고, 그로인한 문제를 많은 연구결과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느릅나무 수피 좀벌레와 모기 방제를 위해 살충제가 살포된 이후, 원래 수백 마리씩 있었던 새들이 봄이 되어서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린 사건이다. 그 원인을 추적한 일리노이대학 자연사(自然史)서베이의 로이 바커(Roy Barker)는 DDT가 축적된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토양을 부패시켰고, 그 오염된 나뭇잎 찌꺼기를 지렁이가 섭취했고, 그 지렁이를 울새들이 먹었다고 설명한다. 지렁이 한 마리에는 미량의 DDT만을 함유했으나, 매일 지렁이를 먹는 새들의 몸에는 얼마 없어 치명적 수준의 독이 쌓이게 되었고, DDT에 중독된 암컷 울새들은 알을 낳아도 칼슘부족으로 잘 깨졌으며, 그 결과 알이 부화해서 새끼 울새가 태어날 확률이 극히 낮아져, 3년 만에 멸종하게 되었다.

65) 진희중, 「근본적 생태철학에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0쪽.

선두에서 이끈 것이 바로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이다.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의 근본원인이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층생태주의는 아르네 네스가 1973년 여름 국제적인 철학전문지 『탐구 *Inquiry*』에 논문 「피상적 생태주의 운동과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생태주의 운동(the Shallow and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s)」을 게재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네스는 기존의 환경운동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피상적(shallow)<sup>66)</sup>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네스는 피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심층적(Deep)이고 장기적인(Long-Range) 운동을 요구한다. 그것은 산업문명사회가 몰고 온 생태위기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철학적 세계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사회 지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네스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생물권을 구성하는 동등한 존재라는 생태적 자기인식의 획득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법칙이 인간의 욕구나 필요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인식이다. 지구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공유지이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함을 주장한다.<sup>67)</sup>

심층생태주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생태학(Ecology)과 생태철학(Ecophilosophy), 생태지혜(Ecosophy)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생태중심의 철학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생태학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생태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들의 주장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생태학은 원

---

66) ‘shallow’의 사전적 번역은 ‘얕은’, ‘천박한’, ‘얕팍한’ 등이다. 그간 네스의 용어가 ‘외피’, ‘표피’, ‘표층’, ‘피상’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피상’으로 사용한다. ‘deep’도 ‘깊은’, ‘근본’, ‘심층’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심층’으로 사용한다.

67) 네스가 심층생태주의를 주창한 이래, 그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미국의 베이트슨, 카프라, 드볼과 세션, 스나이더, 독일 아메리, 영국의 포리트 등이 있다. 이들을 필두로 하여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오늘의 사회가 앓고 있는 핵무기의 위협, 대기오염, 각종 폐기물 및 화학물질 오염, 제3세계의 빈곤, 에너지 고갈, 문화적 질병의 만연, 사회적 병리현상, 그리고 현대인의 자아 및 정체성 상실 등에 주목하고, 이를 현존 문명이 쇠퇴하고 있다는 징후군으로 진단한다.

래 생물학(Biology)의 한 분야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오늘날 주요 학문이 된 생물학은 인류의 복지와 유전공학, 그리고 생태학 분야 등에서 생물학적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도시생태학에서부터 미디어생태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혼란하다. 것처럼 결합이 용이한 이유가 생태학이 생물과 생물이 속한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 및 생물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이 특정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존립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식의 생태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탓이다. ‘생태학’이라는 말은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그리스어의 가족, 가정 또는 생활장소를 의미하는 ‘오이코스(oikos)’와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logos)’를 어원으로 해서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sup>68)</sup>

한편,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상호교환하고 있는데, 무생물적 요소로서 에너지, 물질, 온도와 물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은 1936년 영국의 생태학자 텐슬리(Arthur Tansley)가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생명권의 환경이라 불리는 물리적 요소의 복합체를 포괄한, 물리적 의미의 전체체계(system)를 생태계(ecosystem)로 보았으며, 생태계는 자연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크기와 종류가 다양한 것이라 설명했다. 텐슬리가 생태계라는 물리학의 용어를 생태연구에 사용함으로써 생태학을 물리학과 연결시키려했고, 이는 생태학이 다양한 물리체계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범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 이후 생태계의 각 요소들이 단선적이고 인과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라는 복잡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생태계의 요소들이 서로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그와 동시에 전체계의 균형과 평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생태학을 통해 생물과 환경은 생태계(Ecosystem)를 구성하고 있으며, 자연적 순환체계 속에서 자연적 평형상태, 즉 조화와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생태학은 윤리학 및 도덕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다음의 글은 그 관계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68) 오제키 슈지 외, 『환경사상 키워드』, 김원식 옮김, 알마, 2007, 74쪽.

우리의 임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은 윤리학에서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윤리학에 그 토대를 둘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예를 들어서 ‘인격을 존중하라’, ‘공정하고 정직하라’, ‘선을 증진하라’ 등의 우선적인 의무와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에 대한 원리로 구성된 윤리학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권리란 생명, 건강, 신체적 독립성, 인격 존중, 도덕적 자율과 온전성, (교육을 포함한) 자기 계발, 지식과 참된 신념, 정의 등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권리는 생태학을 포함한 제반 과학이 제공하는 지식에 비추어 해석되고 응용되어야 한다.<sup>69)</sup>

생태철학(ecophilosophy)은 ‘ecological philosophy’의 합성어로서 생태주의 철학을 말한다. 생태위기를 철학 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철학의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철학의 한 분과로 정초하려는 시도이다.<sup>70)</sup> 광의에서의 생태철학은 환경철학(environmental philosophy)과 동일시되어 인간을 둘러싼 환경 내에서 벌어지는 관련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에서의 생태철학은 생태계 위기문제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생태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철학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데 치중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규범윤리학으로는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서구 전통철학과의 근원적 단절을 요구하면서 생태윤리와 생태학적 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중심적 윤리로서 생태학으로부터 당위를 끌어오고 있다. 생태학적 이해가 높다면 그를 바탕으로 윤리적 평가와 처방을 더 잘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스는 생태학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생태학이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식론적이며 철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태학을 최종 판단자로 보는 생태지상주의(ecologism)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sup>71)</sup> 왜냐하면 생태학이 모든 환경문제

69) 헨리 J. 맥클로스키, 『환경윤리와 환경정책-생태학적 접근』, 황경식 옮김, 법영사, 2000, 57~58쪽.

70)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생태계”,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71)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39~40쪽.

를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마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스는 생태학이 ‘개체란 무엇인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은 무엇인가?’ 등의 심층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유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단지 생태학의 존재(is)에서 윤리적 행위의 당위(ought)를 추론할 수 없으며, 과학만으로 철학적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고 본다.

또 네스에 따르면 야생지의 파괴와 종의 멸종과 같은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태학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생태학을 구체적인 문제에 과학적 해답을 제시해주는 또 다른 과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생태학은 피상적인 단기적 처방을 내리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생태위기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근본적 해결을 하려는 시도는 좌절되고 말 거라고 주장한다.<sup>72)</sup>

생태학에서 영감을 받은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오늘날 생태위기의 대부분의 원인이 산업문명 사회의 지배적인 철학에 전제되어 있는 17세기의 이원론적 형이상학에 있다고 보고, 생태학적 통찰을 통해 대안적인 세계관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심층생태주의의 대안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이 과연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지의 여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의 행동의 저변에는 우리가 바라는 세계상이 내재해 있고, 그 말은 우리의 세계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생태위기의 대안적 세계관으로서의 심층생태주의는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심층생태주의는 과학적 생태학에 의해 고취된 대안적 형이상학적 생태학(metaphysical ecology)으로서 생태 및 환경파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sup>73)</sup>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유기체론적 세계관으로 회귀한 심층생태주의는 환원주의의 존재론을 버리고 전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 기계적이고 분석적 사고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생태중심, 생명중심의 환경관을 표방하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개발을 지양하고, 중앙집권이 없는 지방자치를 도모하게

---

72) 위의 책, 130~133쪽.

73) 조용재 외, 『환경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2003, 272~280쪽.

되었다.

자연을 인식하는 관점도 이성보다는 직관적인 신비주의라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 심층생태주의에서 주장하는 신비주의는 비이성적인 초자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태위기의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서 자연과 동일시하는 희열 체험을 통해 큰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쁜 경험이 우리의 본성을 깨우쳐서 너와 내가 같은 존재이며, 인간과 자연이 다 같은 생명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르네 네스는 자신의 심층생태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한 철학으로서, 지혜로서 생태지혜(Ecosophy)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접두어인 ‘eco-’와 접미어인 ‘-sophy’로 구성되어 있다. ‘philosophy’(철학)에서 ‘-sophy’는 통찰이나 지혜를 나타내고, ‘philo-’는 사랑을 의미한다. ‘sophia’는 biology(생물학), anthropology(인류학), geology(지질학)에 들어있는 ‘logos’처럼 특별히 과학적인 진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행동을 위한 통찰력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유기체의 행동은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어원상으로 생태지혜(Ecosophy)는 가정 oikos 와 지혜 sophia로 구성되어 있다. ‘ecology’(생태학)에 있는 ‘eco’는 가족, 공동체보다 넓은 의미로 지구가족에 더 가깝다. 그래서 생태지혜(Ecosophy)는 생물권(ecosphere)에서 삶의 조건에 의해 영감을 받은 철학적인 세계관이나 시스템이 된다.<sup>74)</sup>

그런데 네스는 생태지혜에 T를 더하여 ‘생태지혜 T’라는 용어를 조성하였다. 여기서 T는 네스의 거처인 노르웨이 남부 할링스카르벳(Hallingskarvat)산 속에 있는 트베르가스타인(Tvergastein)을 나타낸다. 네스는 그 곳에서 광대한 야생의 자연을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의 삶을 통해 생태학에 대한 진실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비로소 지혜에 대한 사랑과 산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그의 경험이 ‘생태지혜 T’에 녹아있고, 그래서 네스는 우리가 생태지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직접 관계하는 것임을 T로서 암시한다.

네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철학적 관점은 많은 적든 과학으로부터 늘 영감을 받는다. 인도철학에서 문법이 파니니(Panini)에게 중요했던 것인 반면, 그리스철학

---

74) Arne Naess, 앞의 책, 37~38쪽.



에서 기하학과 생물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었다. 생태지혜 T도 비슷한 방법으로 생태학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생태지혜 T가 생태학이나 다른 과학으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니다.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나 ‘모든 것이 수’라는 피타고라스(Pythagoras)학과 등과 같이 일부 영역의 과학에 의한 영향으로 형성된 철학은, 개념의 틀과 일반적 문제가 주어진 과학 안에서만 접근하게 되므로,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스피노자의 자연이나 또 다른 심오한 자연인식 대신, 단지 자연과학의 틀 안에서 생태학을 놓는 것은 피상적 생태운동을 찬성하는 것이다. 피상적 생태운동은 종종 오염물질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데, 생태학과 더불어 세계관적이고 의식적이고 철학적인 심층생태주의 운동이 요구된다.<sup>75)</sup>

네스에 의하면 철학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 이르는 개인적 가치 규약이나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네스의 철학은 한마디로 ‘생태지혜 T’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사고하며 행위할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철학인 것이다. 따라서 ‘생태지혜 T’는 생태학적 지혜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철학이다.<sup>76)</sup>

---

75) 위의 책. 39~40쪽.

76) 문종길,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의 철학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환경철학』 제1집, 2006, 162쪽.

### Ⅲ. 아르네 네스의 심층생태주의

#### 1. 심층생태주의의 특징

아르네 네스는 『탐구 *Inquiry*』지에 실린 「피상적 생태주의 운동과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생태주의 운동(the Shallow and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s)」에서 기존 환경철학이 우리 과학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으나, 그 메시지가 왜곡되고 잘못 적용되어왔음을 비판하며, 그 대안인 심층생태주의운동(Deep Ecology Movements)을 주창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던 환경운동을 피상생태주의운동(Shallow Ecology Movements)으로 규정하고, 선진국 사람들의 건강과 풍요가 주목적이며, 오염과 자원고갈에 대항하는 싸움만으로는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상생태주의는 인간을 환경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인간만을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입장이나, 심층생태주의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안된 심층생태주의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77)</sup>

먼저, 심층생태주의는 ‘환경 속 인간(man-in-environment)’이라는 이미지를<sup>78)</sup> 거부하고, ‘상호 관련되고 전체 장 [場] 적(the relational, total-field-image)’인 이미지를 선호한다. 심층생태주의에 의하면, 유기체들은 생태계 그물 혹은 고유한 관계의 장 속 매듭(knot)과 같다. 따라서 ‘전체 장 [場](total-field)’으로서의 모델은 ‘환경 속 인간’이든 ‘환경 속 사물(thing-in-milieu)’이든 생태공동체 안의 많은 구성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는 마치 거대한 그물이 씨줄날줄로 얽혀있듯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생태계라는 그물을 구성하는 각각 고유의 매듭으로 상호작용

77) Arne Naess,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 A Summary”, *Inquiry*, vol. 16, 1973, 95~100쪽.

78) 여기서 ‘환경 속 인간’이란 환경을 지배하는, 환경과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권위를 가진 인간이다. ‘환경 속 인간’이라는 관념을 버리라고 할 때, 그동안 지배적 관점에서 환경을 타자로서 바라보는 관념 체계를 버리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고 있으며, A와 B의 고유한 관계는 A와 B의 정의나 기본 구성에 속하는 관계이다. 관계가 없는 A와 B는 더 이상 이전의 A와 B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심층 생태학은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태학적 입장과 인간 역시 생태계 그물을 구성하는 동일한 매듭 중의 하나라는 비인간중심적인 입장에 서있다.<sup>79)</sup>

두 번째, 심층생태주의는 원칙적으로 생물권적 평등주의(biospherical egalitarianism)를 지향한다.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은, 인간이 생존하려면 다른 생명체를 죽이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환경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모습에서 깊은 존중과 숭배의 마음을 얻게 되는데, 다른 생명 종들이 인간과 일종의 동료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적인 이해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생태학적인 현장연구자에게 있어서 생명 종 고유의 삶을 ‘살고 누릴 동등한 권리(the equal right to live and blossom)’는 직관적으로 명백하고 분명한 가치 원칙이다. 하지만 인간중심주의는 이러한 권리를 인간에게만 제한한다. 심층생태주의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자신의 삶의 질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sup>80)</sup>

인간 삶의 질은 부분적으로 다른 생명체와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에서 얻는 깊은 기쁨과 만족에 달려있다. 그러한 관계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들 생명체들과 주인-노예 역할을 굳히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도록 한다.

생명평등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군집도(群集度, level of crowding)’는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군집도’가 지나쳐서, 이미 도시는 군집화 증후군인 노이로제, 공격성, 전통상실 등의 증세가 만연해 있다. 군집도를 재해석하여서, 인간 및 일반 포유류 등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적정 공간규모와 그 공간이 충족시켜야 할 필요요건을 재고해야 한다. 특히 포화상태에 놓인 ‘인구밀도’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포유류의 수적 분포현상<sup>81)</sup>과 이로 인한 생태적 삶의 질 손상 문제도 인간의 인구과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79) Arne Naess, 앞의 글, 95쪽.

80) 위의 글, 96쪽.

81) 육상 혹은 해상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는 포유류가 된다. 생산자 - 1차소비자 - 2차 소비자로 먹이사슬이 연계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다. 네스는 한정된 지구 생태환경에 비하여 최종 소비자인 인구의 수가 많으면, 그에 따라 삶의 질도 저하

가지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심층생태주의는 ‘다양성과 공생의 원리(Principles of diversity and of symbiosis)’를 추구한다. 다양성은 생존 잠재력, 새로운 생활방식의 모색, 생명 형태의 풍성함을 높여준다. 그래서 삶에 대한 투쟁이나 적자생존은 죽이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성 내에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생명종들이 그들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것(live and let live)’은 ‘양자택일(either you or me)’의 논리보다 더욱 강력한 생태적 원리이다.<sup>82)</sup>

양자택일의 논리는 생명형태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동일한 생명종의 공동체 내에서 파괴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생태주의적 태도를 지니는 것은 삶의 양식, 문화, 직업 그리고 경제 체제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군사적인 침략이나 지배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침략이나 지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 인간 특정 부족과 그들 부족문화가 몰락해 가는 것처럼, 바다표범과 고래의 소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심층생태주의는 반[反]계급적(anti-class posture) 자세를 취한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어떤 집단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해소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두 집단 모두 그들의 자아실현의 잠재성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 ‘생태적 평등주의’나 ‘공생의 원리’는 지배와 억압에 반대하는 반계급적 원칙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반계급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갈등을 포함해 어떤 집단 간의 갈등에 직면해서도 앞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sup>83)</sup>

다섯 번째, 심층생태주의는 오염과 자원 고갈에 대하여 투쟁한다. 이 투쟁에서 심층생태주의자들은 강한 지지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입장을 전

---

된다고 본다.

82) Arne Naess, 앞의 글, 96쪽.

83) 위의 글, 97쪽.

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오염이나 자원고갈에만 관심이 집중될 때, 또는 오염은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해악을 증가시키는 어떤 계획이 시행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를 가동하면서 생산된 어떤 생활필수품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경우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계급 격차도 함께 커질 수 있다.<sup>84)</sup> 그러므로 피상생태주의 운동이 아니라, 심층생태주의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스는 생태주의자들이 잘 조직되어 있으면,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어느 사회에서나 대체할 수 없는 정보원으로서, 또 한정된 생태 목표를 지향하는 계획이나 제도에 잘 맞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sup>85)</sup>

여섯 번째, 심층생태주의는 혼잡성(complication)이 아닌 복잡성(complexity)을 추구한다.<sup>86)</sup> 생태주의 이론에서 통합적인 원리가 없는 ‘혼잡한 것’을 ‘복잡한 것’이나 ‘게슈탈트’(Gestalt)와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합법적이면서 상호작용적인 요소들의 다양성은 하나의 통일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데 함께 기능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유기체 삶의 방식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용들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이 함축되어 있다.

‘혼잡성이 아닌 복잡성’의 원리가 노동의 문제에 적용된다면, ‘노동의 분할’(fragmentation of labor)이 아니라 ‘노동의 분업’(division of labor)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개인들을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활동적으로 노동 행위에 참여하는 통합된 유형의 행위자로 간주하게 되는 것

---

84)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생산이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는 심층생태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계급적 자세와 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85) Arne Naess, 앞의 글, 97쪽.

86) 기존 논문들에서 complexity는 ‘복합’으로, complication은 ‘복잡’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복합(複合)’이라는 의미는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져 여러 개의 속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때문에 네스가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complexity을 ‘복잡’으로, complication은 생태질서에 반하여 뒤엉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혼잡(混雜)’으로 번역한다. 다만, 일상에서 우리가 복잡하다고 말할 때, 복잡해서 귀찮거나 어렵다는 식의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네스가 사용하는 의미는 상이하다. 그는 단순한 삶이 생태계의 역동적인 복잡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양식에서도 혼잡한 환경과 방법이 제거되어야 더 다양하고 풍부하며 경이로운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다. 이 원리는 삶의 수단에 있어서 통합된 다양성<sup>87)</sup>을 지니고 있는 복잡한 경제를 지지하며, 보다 유연한 기술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전문적 기술과 발명이 급격히 성장한 이 세기, 무엇보다 생태학적 책임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일곱 번째, 심층생태주의는 지방자치와 분권화를 지향한다. 한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생태적 균형을 획득한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받는 영향력의 정도가 클수록 그 생명체의 취약성은 커진다.<sup>88)</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 정부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기충족성을 키우려는 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분권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열 공해나 쓰레기 재활용 등을 포함한 오염 문제들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변수들이 변치 않는 한, 지방 자치정부의 자율성 증가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자율성은 의사결정의 위계 구조를 줄임으로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위원회-광역시위원회-지방 최고 결정권자-국가제도나 연방정부-국가간 연합-유럽경제공동체 집행위-국제기구’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구조는 각 세부단계를 거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고려대상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이를 ‘지역위원회-국가 기관-국제기구’로 이어지는 식의 단순한 구조로 축소하여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스는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이러한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한 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요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89)</sup>

첫째, 네스는 심층생태주의 운동의 규범과 경향성은 생태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또는 귀납적으로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생태학적 지식과 생태적 현장연구가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심층생태주의 운동을 제안하고 영감을 주고, 심층생태주의 운동의 관점을 강화시켰지, 생태학으로부터 논

---

87) 그 예로 산업활동과 농업활동, 지적 활동과 육체노동, 전문 직업과 비전문 직업, 도시 활동과 비도시 활동, 도시에서의 노동과 자연에서의 휴식과 놀이 그리고 도시에서의 휴식놀이와 자연에서의 노동을 조합하는 것 등이다.

88)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소위 신토불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맥이 닿아있다. 생명체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멀어질수록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다.

89) Arne Naess, 앞의 글, 98~99쪽.

리적이거나 귀납적으로 파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90)</sup> 그리고 위의 일곱 가지 일반적원리가 대부분 모호하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외부의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특정방향에서의 정교화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둘째, 네스는 심층생태주의 운동의 주요한 원리들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규범적’인 의미심장한 신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리들은 부분적으로 과학적 연구의 결과로부터 근거하여 나온 가치우선성체계를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정책 결정자들이 건강과 분배정의에 관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수용하려는 것에 대해 생태주의자들은 오염물질과 자원 고갈에 대한 예언과 협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네스에 따르면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사람들이 심층생태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타당하다고 여겨 수용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층생태주의의 규범과 가치 체계는 더욱 자유롭게 적용되고 정교화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네스는 심층생태주의 운동이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때, ‘생태학적’(ecological) 측면이 아니라, ‘생태철학적’(ecophilosophical) 측면에 대해서라고 생각했다. 생태학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제한적’(limited) 과학이지만, 철학은 기술적 주제뿐만 아니라 처방적인 주제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논의할 수 있는 ‘일반적’ 담론의 장이다. 네스는 생태지혜(ecosopy)를 생태적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철학이라 의미했다.<sup>91)</sup>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의 한 형태로서, 규범적이며, 규범, 규칙, 가정, 가치 우선성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안의 사물의 상태에 관한 가설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혜는 과학적 기술이나 예측에 관한 것만 아니라 정책과 처방에 관한 지혜이다.

아울러 네스는 “생태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피노자의 체계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과 관련된 기술적이고 처방적인 일련의 진술들이며, 추론 가능성에 적합한 개념들이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연역에 따라 어떻게 정당화 되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고 엄격하게 추구하여야 한다.”<sup>92)</sup>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 생태학이라는 이

---

90) 따라서 네스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91) Arne Naess, 앞의 글, 99쪽.

92) 위의 글, 99쪽~100쪽 참조.

를 하에서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접근들이 있었으나, 이는 심층생태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생태철학은 필연적으로 생태적이고 규범적이며 현실적인 광대한 영역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지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질적인 전제이나, 가까운 미래에는 정책결정에서 지역적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 2. 심층생태주의 환경운동 전략

### 2.1 피상생태주의와의 차별화

심층생태주의는 1960년대 전개된 기존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오염, 자원고갈, 그리고 선진국 국민들의 건강과 부에 주로 관심을 두는 인간중심적이고 기술지향적인 환경운동의 한계를 인식한 네스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생태지향적 환경운동(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을 시작한다. 그는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확립을 통해, 총체적인 문제인식 및 행동을 요청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환경운동을 ‘피상(shallow)’, ‘개량(reform)’생태주의로<sup>93)</sup>, 근본적인 새 변화를 도모하는 자신의 생태지향적 환경운동을 ‘심층(deep)’생태주의로 칭하여, 일단 범주 구분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시도했다.<sup>94)</sup> 이러한

93) 네스는 기존 환경운동을 피상(shallow)생태주의라고 칭하면서, 피상(shallow)과 함께 개량(reform)도 병기(併記)하였다.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28쪽. ‘reform’의 영어사전 한글 번역은 ‘개혁’, ‘개정’, ‘개선’, ‘개편’, ‘쇄신’으로 권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근본적’과 대비되는 의미로 ‘개량’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한편 네스는 이러한 개량주의적 환경운동으로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94) 1973년 『탐구 Inquiry』에 실린 심층생태주의운동에 관한 네스의 아이디어는 1972년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bucharest)에서 열린 ‘제3세계의 미래’회의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었다. 그 이후 ‘피상 대 심층’이라는 네스의 생태주의 개념이 구별되긴 했으나, 스칸디나비아 지역 이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의 이 개념이 철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에게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사실 드볼과 세션즈의 기여이다. 그들은 1985년 『심층생태주의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라는 저서를 통해 네스



대칭적 용어 표현은 두 입장의 구별을 좀 더 선명하게 대립시키는 효과를 준다. 기존의 환경운동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의 질문하기가 있었겠으나, 심층생태주의에서 ‘피상’과 대별(大別)된 ‘심층’의 수식어는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전략 구상단계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보다 ‘깊이’, 문제의 근원까지 해야만 한다는 뉘앙스를 드러내준다. 그래서 심층생태주의 운동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등 모든 공공 정책과 접근 방법에 대해 당연한 것,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생태운동”<sup>95)</sup>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피상생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네스의 구분에 따라 피상생태주의 운동과 심층생태주의 운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96)</sup>

먼저 오염(Pollution)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면, 심층생태주의가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구하는 데 반하여, 피상생태주의는 겉으로 들어나는 좁은 범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상생태주의는 기술이 문제가 되는 공기나 물을 정화하고 인구를 균등하게 분포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법률로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환경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규제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인식했다. 그리고 오염을 배출하는 산업은 될 수 있으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해야할 것으로 여겼다. 또 다른 예로 산성비의 경우에 있어서 산성비의 원인과 피해 등에 관한 보다 충실한 과학적 결론을 얻

---

의 아이디어를 상술(詳述)했고, 당시 세계적인 문화흐름인 ‘뉴에이지 운동 New Age Movement’과 환경보호 단체들의 활발한 운동 등도 심층생태주의 개념을 대중화 하는데 한몫을 했다.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였는데, ‘Earth First’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들은 1984년 네스와 세션즈가 만든 심층생태주의 운동의 8대 강령을 하나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네스도 1972년에 ‘피상 대 심층’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이래, 꾸준히 그 아이디어를 체계화 시켰다. 특히 1989년 로텐버그에 의해 영역 출간된 네스의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은 네스가 심층생태주의를 통해 추구하고자하는 ‘생태지혜 T’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논증되고 체계화되었는지를 잘 담고 있다.

95)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74쪽.

96) Arne Naess,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Philosophical Inquiry*, vol, 8, 1986. 네스의 이 논문은 다음 저서에도 실려 있다. Frederik A. Kaufman,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Philosophy : A Text with Readings*, McGraw-HillCollege, 2002.

을 때까지 대책을 유보하거나 고산도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의 식물을 개발하여 대처하려한다.

반면, 심층생태주의는 산성비 및 오염물질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권 관점에서 모든 종과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과도하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체적인 생태계와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조건에 대한 대응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0여년의 장기적인 범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97)</sup>

자원(Resource)에 관한 인식에서도 그 차가 크다. 피상생태주의는 인류를 위한, 특히 현세대의,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자원 고갈 문제는 시장기구의 가격 조절기능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대체재 개발 등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는 인류만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내재적 목적을 위한 자원이자 서식처라고 보았다. 어떤 자연대상도 자원으로써만 인식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류만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생산 활동과 다른 생명체의 내재적 목적을 위협하는 소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98)</sup>

인구(Population)에 관한 인식에서도 입장이 구별된다. 피상생태주의는 과잉인구의 위협은 개발도상국에 국한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단견적인 경제, 군사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국가의 인구증가를 묵과하거나 국가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적정 인구(Optimum population)’의 개념은 다른 생명체를 위한 적정인구라는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인류만을 배려한 개념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는 지구전체 생명체에 대한 과도한 압력이 인간의 인구폭발이라는 데서 온다고 본다. 그래서 산업국가에서의 인구 폭발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생명체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산업국가에서의 인구감축 문제가 사회에서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sup>99)</sup>

---

97) 위의 책, 407쪽.

98) 같은 곳.

99) 위의 책, 408쪽.

문화적 다양성과 적정 기술(Cultural Diversity and Appropriate Technology)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상생태주의는 산업화 되지 않은 사회의 목표는 서구 산업국가 형태의 산업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기술의 보급과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가 양립가능하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두 사회 사이의 현격한 문화적 이질성이 있는데, 비산업화사회의 고유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심층생태주의에 의하면 비산업화 되지 않은 사회의 문화가 산업사회의 다양성에 의해 잠식되지 않도록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비산업사회 국가들은 선진국의 생활양식을 모방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은 생명 형태의 생물학적 풍요 및 다양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서구 기술의 보편화를 통해서 비산업사회의 문화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하고, 산업사회들도 지방문화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00)</sup>

토지 및 해양 윤리(Land and Sea Ethics)와 관련하여 피상생태주의는 자연의 경관, 생태계, 하천, 그리고 다른 모든 총체는 개념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해체될 수 있는 파편처럼 생각한다. 이 파편들은 개인이나 조직, 혹은 국가 등의 재산이자 자원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전체적 실체들에 대해 어떤 특별한 배려도 하지 않는다. 자원의 보존은 다목적성과 비용 편익분석의 견지에서 논의되며, 자원 채취 및 이용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 및 장기적이고 전 지구적인 생태학적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생 자연의 관리는 오직 미래세대의 인류를 위한 자원보존으로만 인식된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는 지구는 결코 인류만의 것이 아니며, 대양의 해저의 석유도 어떤 국가나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역 사회의 자원 역시 그 지역 사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인식한다. 인간은 단지 자신의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땅위에 거주할 뿐이다. 사치적 요구충족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의 필수적 요구충족과 충돌한다면, 인간이 양보해야한다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파괴는 결코 기술혁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늘날 산업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류의 오만함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sup>101)</sup>

교육 및 과학 활동(Education and the Scientific Enterprise)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상생태주의는 환경 악화와 자원 고갈에 대처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과 건강한 환경 유지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구관리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물리학과 화학 등 자연 과학

---

100) 같은 곳.

101) 같은 곳.

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심층생태주의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정서적 풍요를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은 비소비적 재화에 대한 감수성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가격표와 관련된 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억제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 사회 과학 같은 학문의 발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과학은 지방적 그리고 지구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성(soft)’과학에 집중한다.<sup>102)</sup>

피상생태주의 운동과 심층생태주의 운동은 모두 당면한 환경파괴와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적 접근이었으나, 위의 기본인식에서 보듯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의 방향이나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두 입장의 다른 점을 대칭구조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상생태주의	심층생태주의
목적	물질적 풍요	정신적 풍요
적용범위	국지적	전지구적
적용기간	단기적 근시안적	장기적 근본적
환경관	인간중심적	생태중심적
과학관	과학기술 지향	초과학적 직관
가치관	도구적 합리성	실체적 합리성

위와 같은 두 입장의 성향은 피상생태주의 운동이 시장 기구 및 제도의 역할을 신뢰하는 환경 개량주의에 머물게 하였다. 심층생태주의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성향을 띠었다. 폐퍼는 심층생태주의의 이러한 관점을 자연의 법칙에 겸손하게 따르려고 노력한다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심층생태주의는 코모너(Commoner)가 제시한 “자연이 가장 잘 안다”는 ‘생태학 제3법칙’과 “자연생태계에 인간이 야기한 어떠한 변화도 그 체계에는 해롭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이며, 심층생태주의자들은 (a) 자연의 가치를 모든 가치의 원천이

102) 위의 책, 409쪽.

라 보고 (b)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을 조작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원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을 반대한다(Pepper,1996, 18).<sup>103)</sup>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다른 것이라고 보았던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한 심층생태주의는 ‘철학’이라는 용어 대신 ‘운동’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걸었다. 네스는 이에 대해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이 전통적 의미의 강단 철학이나 제도화된 종교 혹은 이념과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심층생태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철학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이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운동’으로 보았다.<sup>104)</sup> 또한 심층생태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전형적이고 일반화된 행동 강령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명시적인 행동 강령은 오히려 폭넓게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은 수준에서 ‘공정하게 일반화하고 추상화한’ 심층생태주의의 8대 강령(platform)이 제시되었다.

## 2.2 심층생태주의 행동강령

네스와 세션즈는 1984년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에서 야영하면서 심층생태주의자가 당면하는 많은 환경문제에 적용할 8가지 실천강령<sup>105)</sup>을 고안했다. 생태지혜 T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8개항의 실천강령은 심층생태주의를 정교화하고 주요 개념을 명료화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천한 결과들을 통해 사고하도록 제시되었다. 네스에 따르면,<sup>106)</sup> 지구적 차원의 목표를 위해 함께 운동하는 심층생태주의 지지자들은 어떤 ‘공정하게 일반적이고 추상화되는 원칙’들을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층생태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비폭력 또는 평화

---

103) 서태열, 「현대 환경주의의 유형과 그 교육적 함의」, 『지리교육논집』 제49권, 2005, 190쪽, 재인용.

104) Arne Naess, 앞의 글, 200쪽.

105)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70쪽.

106) 데이비드 로텐버그, 『생각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요?』, 박준식 옮김, 낮은 산, 2011, 278쪽.

운동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형적이고 일반화된 행동강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령들이 지지자들의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견해나 종교적 견해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위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일반화하고 추상화되어야 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몰했을 때, 심층생태주의의 8대 강령을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도시 사이에 발생한 불균형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동물로 인해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그 동물을 당장 제거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 개체의 권리를 더 고려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제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심층생태주의를 정초함에 있어, 이 8대 강령은 심층생태주의 입장의 본질을 설명하고,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환경과 관련된 특정상황에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의견일치를 도모한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따라서 8대 기본원리들은 심층생태주의 운동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네스와 세션즈는 8대 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107)</sup>

**1.지구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복지와 번영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sup>108)</sup> 갖는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가치는 인간에게 유용한가의 여부와**

107) 심층생태주의 8대 강령은 다음의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1989년 이후, 4번 강령과 5번이 서로 자리바꿈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네스의 “The Basics of Deep Ecology”의 코멘트를 기본으로 다음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1985), 70~73쪽; Arne Naess, “The Basics of Deep Ecology”, *the Trumpeter*, Vol. 21, No.1(1986), 68~71쪽;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1989), 29~32쪽; Rothenberg, David, *Is it painful to think?: Conversations With Arne Naess*, Minnesota Press(1993년).

108) 1번 강령의 ‘가치’는 논문마다 다르게 쓰여서 그 해석이 약간 애매하다. 처음 드볼의 논문에서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value in themselves)’라고 한 후, 괄호에 동의어로서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생득적 가치인 ‘고유의 가치(inherent value)’를 병기했다. 그런데 네스의 이후 논문에는 각각 혹은 병기 식으로 썼다. McLaughlin은 여기에서의 가치가 철학의 ‘가치론’에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대화 수준에서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환경운동을 통한 강령 실천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음

는 별개이다.<sup>109)</sup>

첫 번째 강령은 생물학적 좁은 관점에서의 생물권(biosphere)으로서 지구가 아니라 생태공간(ecosphere) 전체로서 지구 생태계에 대한 논의로서, 지구상 인간이든 인간이 아닌 생명체든 모두 번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원리는 인간과 지구생태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중이 암시되어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인 과정 전체로 볼 때,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가 언급했듯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명(life)’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보다 포괄적인 비기술적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태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서, 강(폭포), 경치, 생태계 등 생물학자들이 ‘무생물’이라 분류한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심층생태지지자들에게 있어 “강을 살아 있게 하라”는 슬로건들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매우 공통적인 이러한 광의의 용어 활용을 설명해준다. 첫 번째 강령은 심층생태주의가 생명중심, 생태중심으로 사태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간에게 유용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생태주의와 차별화하고 있다. 어떤 존재든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강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자연 존재에 대해 동등한 도덕적 배려를 고려하기를 권한다. 생태계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지구상 생명 형태들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들의 실현에 기여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인간의 문화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sup>110)</sup>

두 번째 강령은 다양성(diversity)과 공생(symbiosis)에 관한 원리이다. 생태주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성(complexity)과 공생은 다양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들이

---

뿐, 결코 어떤 새로운 가치이론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용어에 대해 도덕 철학적 윤리적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송명규, 『환경철학의 전개2 : 근본생태론1』,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1집 1호, 1996, 134쪽 각주 참조.

109)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앞의 책, 70쪽.

110) 위의 책, 70쪽, “인간의 문화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구절은 데이비드 로텐버그의 책에 언급되었듯, 8대 강령 최신버전에 포함되어 있다. 데이비드 로텐버그, 『생각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요?』, 박준식 옮김, 낮은 산, 2011, 156~163쪽 및 263~271쪽 참조.

다. 하위종 또는 원시종은 생명의 풍부성 및 다양성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며, 새로운 삶의 형태를 풍요롭게 제시하여서 생존의 가능성과 기회를 더 늘려준다. 이에 대해 네스는 “단순하고 저급하며 원시적인 동식물 종들도 본질적으로 삶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동식물 종들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소위 고등 혹은 합리적인 생물 형태로 나아가는 그저 단순히 진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복잡성(complexity)은 혼잡성(complication)과는 다르다. 도시생활이 다면적 삶의 질에 있어서는 복잡하지 않더라도, 자연 환경에서의 생활보다는 더 혼잡하다. 네스는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복잡성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많은 복잡성을 누리려면 그만큼 수단이 단순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단순한 수단으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작지만 복잡한 삶을 누리며, 만족스런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언급한다.

**3.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sup>111)</sup>**

네스는 이 강령이 약간 강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냉정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12)</sup> 그래서 ‘생명유지를 위한 요구’(vital need)와 그렇지 않은 요구들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많은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생명유지를 위한 요구’는 기후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회구조에서 사는지 등에 따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고래를 잡는 사람이 고래잡이를 그만둘 경우, 그의 현재 경제 여건 하에서 생계를 이어갈 다른 수단이 없다면, 그에게 고래잡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배가 충분한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위 치탐사를 해가면서 고래잡이 할 정도로 풍족하다면, 그것은 ‘생명유지를 위한 요구’의 문제가 아니라, 고래를 죽이는 행위이다.<sup>113)</sup> 또 에스키모에게 있어서 설상

111) 위의 책, 70쪽.

112) Arne Naess, “The Basics of Deep Ecology”, *the Trumpeter*, Vol. 21, No.1 ,2005, 68~71쪽.

113) 같은 곳.



차(snow mobile)는 여전히 필수적 이동수단이나, 레저를 위한 것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이나 신제품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에게 이 강령의 요구는 참으로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중간 단계적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드볼은 우선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서 인식시키는 것을 제안한다.<sup>114)</sup>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도 현 상태의 안주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필요한 조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 네스는 인류가 처한 생태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보다 더욱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층적인 변화를 이루기까지, 풍부함과 다양성의 상당한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종의 멸종비율은 지구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클 것이다. 오늘날 수십억 인간이 생태학적 책임의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심층적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인간 이외의 생명이 번영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4.인간의 생활과 문화의 번성은 인구의 실질적 감소와 양립한다. 인간 이외 생명의 번성은 인간의 인구 감소를 필요로 한다.<sup>115)</sup>**

지구용량에 적정한 인구로 그 수를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환경주의 이론에서 공통적이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강령이 현재 인구가 과포화여서 비인간적인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인구수를 감축시키거나 새로운 인구의 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용량에 적정한 인구수로 줄어든다면 ‘인간의 생활’이나 ‘문화의 번영’에 있어서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인구 과잉문제에 대하여 심층생태주의와 생태 여성주의의 논리는 상호연계 될 수 있고, 이러한 연계는 인구문제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sup>116)</sup> 네스는 인구의 안정과 감축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전략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up>117)</sup> 중간 단계

114)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앞의 책, 71~72쪽.

115) 위의 책, 70쪽.

116) 조석영, 앞의 글, 49쪽

117) Arne Naess,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Philosophical Inquiry*, vol, 8, 1986. 또는 *Deep Ecology for 21<sup>st</sup> Century*, 69쪽.

적 전략들을 개발해야 한다.

**5.현재 인간이 비인간 세계(non-human world)에 하고 있는 간섭은 과도하며,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sup>118)</sup>**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인류는 지구를 바꾸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바뀌갈 것이다. 생존을 위하여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간섭행위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간섭의 본질과 그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음(noninterference)’이라는 슬로건의 의미는 인간이 생태계를 변형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네스는 인간이 비인간 세계에 하고 있는 간섭 중에 생태계 순환 체계가 달라지도록 하는 간섭에 대해 우려한다. 또 야생 숲과 야생의 생태계가 부자국가에서는 이미 과도하게 파괴되었는데, 그러한 예가 가난한 다른 나라에서 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야생지와 야생지 주변 지역을 보전(保全)하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식물들이 진화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원시 자연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야생 지역은 규모면에서 종 분화가 일어나기에는 충분히 넓지 못하다. 네스는 야생지나 그 인접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생태적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6.이상의 강령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 왔던 지배적인 행동방식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한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sup>119)</sup>**

네스에 따르면 여섯 번째 강령에서는 오늘날 산업화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소비 지향적 사회구조를 통해서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행동 강령을 실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희소성과 상품 가치를 지니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데, 네스는 이러한 삶의

---

118)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앞의 책, 70쪽.

119) 위의 책, 70쪽.

양식을 개탄한다.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중앙집권배제’(decentralization),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 그리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개념들은 오늘날 생태주의의 운동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수행하려면 전 세계적이고 ‘국경을 넘어선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녹색’경제주의는 상담 받아야 한다.<sup>120)</sup> 또 코스타리카 및 소수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제3세계국가들은 심층생태주의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하다. 산업화된 사회의 정부들이 제3세계의 정부를 상대로 생태 주의적 기준을 높여보려고 하지만, 사막화의 문제에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비정부 국제기구(NGO)를 통한 전세계적 차원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점차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 기구들의 대부분은 ‘풀뿌리에서부터 풀뿌리에로’(from grass roots to grass roots)의 방법을 통하여, 전 세계적 범위에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에 따른 부정적인 면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문화의 다양성은 각 문화의 기본적인 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진보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심에는 소위 유연하고 매개적이며 대안적인 기술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7.부자 나라들의 사상적 변화는 생활의 물질적 기준을 높이기보다는 삶의 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주가 될 터이며, 이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적 상태가 준비될 것이다.<sup>121)</sup>**

일곱 번째 강령은 ‘삶의 질’을 어떻게 수용할 지에 관한 조항이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평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모호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 개념이 계량적이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적절하게 계량화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이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

120) 경제성장주의적, 소비 지향적 사회구조와 삶의 양식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층 생태주의가 표방하는 8대강령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 ‘녹색’경제주의 역시 자본주의에 녹색만 더한 인간중심주의이다.

121)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앞의 책, 70쪽.

다. 이 강령은 삶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행복과 같은 ‘주관적’ 요소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환경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존 삶의 양식을 거부할 것을 강요하거나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어떤 환경주의 철학이라도 단지 거부와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이론의 정치적 효과는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층 생태주의는 삶의 질의 문제에 초점을 둬으로써 ‘생명력’과 ‘기쁨’의 추구하고 같은 보다 정신적이고 만족스런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8.이상의 강령에 동의하는 이들은 필요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122)</sup>**

여덟 번째 항목을 실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네스는 ‘우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변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좀 더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명백하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긴박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 기본 원리를 수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 사람들의 총체적인 인식, 사회구조, 당면한 생태적 문제현재가 어떠한가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변화를 시도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긴 국경’(The frontier is long.)을 넘기 위한 활발한 협력을 배제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차이는 오히려 다양성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sup>123)</sup> 만약 심층생태주의가 어떤 행동을 하나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주장한다면, 심층생태주의는 하나의 고정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개방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이며 비폭력적인 수단이면 된다.

---

122) 로텐버그, 앞의 책, 265-267쪽을 약간 수정한 최신 버전이다.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70쪽의 내용에서는 표현이 일부 수정되었다. 심층생태주의 8대 강령에서 추구하는 아이디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23) Frederik A. Kaufman,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Philosophy : A Text with Readings*, McGraw-HillCollege, 2002, 406쪽.

그런 입장에서 심층생태주의의 8대 강령을 수용하면서 나름 독자적인 생태중심적 문명을 구현하려는 개인과 집단이 점점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애비의 소설 『멍키렌치 갱』(1975)이야기에 등장하는 생태돌격대의 비밀활동에서 영감을 얻은 환경주의자 데이브 포어맨은 '어스 퍼스트!'를 시작한다. 어머니 대지를 지키는 데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어스 퍼스트!: 근본적 환경잡지 *Earth First!: The Radical Environmental Journal*』는 잡지를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알리면서, 직접행동<sup>124)</sup>을 한다. 이 잡지에는 어머니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직접행동들에 대한 기사와 지역 모임 소식들을 실었다. 그들은 미국의 마지막 야생 유산을 남겨 두기 위한 산림청과 토지관리국의 정책 실패에,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이 결여된 관료적 환경주의에 분개한다.<sup>125)</sup> 그래서 시위, 게릴라적 효과, 시민불복종, 그리고 멍키렌치 방법으로 투쟁했고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로 생각했다. 예를 들어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공유지를 개발하려고 길을 닦는 불도저를 방해하기 위해서 몰래 엔진에 모래를 집어넣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전선 철탑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밤중에 전기톱으로 절단하기를 다반사로 하였으며, 측량한 말뚝을 다른 것으로 옮겨놓거나 광고 게시판을 절단하여 쓰러뜨리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지구를 구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생태적 과격 행위를 벌였으나,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동료 인간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도덕적 책임추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네스도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 얼마 후, 마르달 폭포의 댐 건설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을 했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 폭포 근처의 바위에 몸을 동여맨 사건이었다. 네스는 이러한 정치 투쟁 방법으로 유명해졌으며, 노르웨이에 그린피스 지부가 생겼을 때, 그는 지부장이 되었고 노르웨이 녹색당의 의원 후보로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sup>126)</sup>

124) 어스 퍼스트의 직접행동에는 임도 봉쇄, 오래된 숲에서 연좌농성, 미국 산림청사 앞에서의 시위, 목재회사에서의 연좌 농성, 그리고 스미소니언박물관이 애리조나에 천문대를 세움으로써 그레이엄산(山)의 붉은 날다람쥐 서식지를 위협하는 계획에 대한 항의 등이 있다. 또 불도저 앞에서 자신들을 사슬로 묶고서 대치하고, 제재소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원목 수출 선박의 크레인 앞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대치하거나, 목장주인의 가축 떼 속에 방목을 반대하는 선동차를 집어넣고, 경기장의 벽을 항의 문구들로 가득 채우는 등의 활동을 했다.

125) 캐롤린 머천트, 앞의 책, 269-275쪽.

생태학적 운동은 정치를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 심지어 개인적인 것까지도 정치와 관련이 있다. 생태정치(ecopolitics)는 구체적인 생태적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양상도 함께 고려한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생태운동을 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한다. 모든 정치적 결정은 녹색과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녹색당은 주요 논쟁마다에서 정통한 사람을 가질 만큼 충분히 커야한다. 교육적인 조사는 드볼과 세션즈에게서 발견된다. 산업 민주주의에서 녹색정치 지지자들은 다양한 정당의 정치가들이 특정문제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투표했는지 추적해야 하고, 녹색전망을 바탕으로 그들을 평가하여야 한다.<sup>127)</sup>

### 3. 아르네 네스의 문제해결 전략

#### 3.1 생명평등과 큰자아 실현

심층생태주의가 지향하는 생태주의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개체론적이고 원자론적이며 환원론적 입장을 거부하고, ‘생태’ 그 자체를 하나의 전체이자 개체로 보는 전체론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전체론(holism)은 개체론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개체의 안녕, 복지, 권리보다 전체의 안전이나 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태위기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에서는 기존 세계관을 부정하고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생태학으로부터 많은 논거를 얻었지만, 전체적인 생태적 통찰은 “모든 존재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sup>128)</sup>,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구성된다.”<sup>129)</sup>고 본다. 그래서 인간은 주변 환경의 일부이며, 그 환경에 속한 존재로서, 다른 인간, 생태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본

126) 김우창, 「어느 소박하고 깊은 삶」, 경향신문 2009년 3월 12일자.

127)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133쪽.

128) Arne Naess, “Ecosopy and Gestalt Ontology”, *Deep Ecology for the 21<sup>st</sup> Century*, 240쪽.

129) Arne Naess,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 A Summary”, *Deep Ecology for the 21<sup>st</sup> Century*, 150쪽.

질이 규정된다.

생명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기 나름의 삶을 전개하고 큰 자아의 맥락 안에서 자기를 실현할 평등한 권리가 있다. 모든 유기체와 생태권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상호연관된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본질적 가치에서 동등하다.<sup>130)</sup>

드볼과 세션즈는 심층생태주의에서는 개체론적 자아 모델과 전체론적이고 관계적인 자아 모델을 구분하면서, 자연과 내가 하나 됨을 인식하는 큰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상당수의 종교가 갖는 전통과 마찬가지로, 큰 자아실현이라는 심층생태주의의 규범은 기본적으로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근대 서구적 자아를 넘어선다. ... 좁은 자아에 대한 사회적으로 입력된 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방식의 제물로 만든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인 자아를 보지 않고, 가족과 친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자아의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요구해,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추구한다.<sup>131)</sup>

“심층생태주의 운동은 곧 심층생태주의 강령이며, 심오한 문제제기 과정이고, 강령의 정신적 행동주의”이다.<sup>132)</sup> 그리고 행동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큰자아 실현’(Self-realization)이다.<sup>133)</sup> 네스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자아의 성숙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ego)에서 사회적 자아(social self)로, 그리고 사회적 자아에서 형이상학적 자아(metaphysical self)로의 단계가 그것이다. 각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네스는 자아의 성숙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논리 속에 ‘자연’의 요소는 전체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환경,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있는 가정,

---

130) Devall, George Sessions, *Deep Ecology-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67쪽.

131) Devall, George Sessions, 앞의 책, 66쪽.

132) 송명규, 앞의 글, 136쪽.

133) 네스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도전 중의 하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 모두의 자기 이해가 심화되는 것을 방해하며 모든 생명체들이 그 존재에 따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지구 생태학적 재난이 더 확대되기 전에 이를 살리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sup>134)</sup>는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스는 임시적으로 ‘생태적 자아’(ecological self)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네스에 의하면 사회와 인간관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아는 생태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풍부해지는 것이다.<sup>135)</sup>

네스는 생태적 자아의 존재와 중요성을 자신의 국가인 노르웨이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전에 사람들의 거주지는 노르웨이의 해변을 따라 넓게 흩어져 분포되어 있었으나,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도시로 이주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정책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미발달된 주변 지역에서 ‘발달된 중앙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주된 사람들은 명백하게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자연적 환경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즉 사람들이 작업하고 살아가던 삶의 장소는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의 상실 현상이 나타났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묻기 시작했다. 자기 존중에 대한 관념은 파괴되었고,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발전되고’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들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장소’는 ‘그들 자신의 한 부분’이었으며, 이 장소에 대한 관계는 내 자신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논리로 생태적 자아의 존재를 설명한다.<sup>136)</sup> 만약 그 장소가 파괴되면 내 자신에 있는 어떤 것이 파괴되는 것이며, 만약 그 장소가 변화된다면 나 역시 변화되는 것이다.

네스는 ‘이기적 자아’(self)를 실현하는 협의의 개체론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포함하는 개념인 ‘큰자아’(Self)를 실현한다는 일종의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드볼과 세션즈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길러내는 것은 전인적 존재가 되는 ‘진짜 일(real work)’

---

134) Arne Naess, “Self-Realization: An Ecological Approach to Being in the World”, *Deep Ecology for the 21<sup>st</sup> Century*, 225~226쪽.

135) 위의 책, 230쪽.

136) 같은 곳.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진짜 일’은 ‘큰자아 안의 자아(self-in-Self)’에 대한 실현으로 상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큰자아(Self)란 유기적 전체성을 나타낸다. 자아의 완전한 펼쳐짐 과정은 ‘우리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는 아무도 구원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에 의해서도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아무도(one)’ 속에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고래, 회색곰, 우림지대 생태계, 산, 강, 토양의 가장 작은 미물 등등을 포함한다.<sup>137)</sup>

이처럼 큰자아(Self) 실현은 한 전체로서의 실재의 펼침(unfolding of reality)을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자아가 자신을 큰자아로 인식하는 과정이면서, 큰자아의 이익을 자기이익으로 보는 과정이다. 자신의 개체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 형태를 포함한다. 생태지혜 T에서 네스는 궁극적인 단계에 규범적 진술문 즉 “큰자아(Self)를 실현하라!”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생물다양성과 풍부함의 본래적 가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출하고 있다.<sup>138)</sup>

규범1 - 큰자아(Self)를 실현하라!

가설1 - 누군가에 의해 더 높은 큰자아가 실현될수록 타자들과의 일체화가 더 깊고 더 넓어진다.

가설2 - 누군가에 의해 더 큰자아 실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종의 타자들의 큰자아 실현에 달려있다.

가설3 - 누군가의 완벽한 큰자아 실현은 모두의 큰자아 실현에 달려있다.

규범2 - 모든 생명체들을 위하여 큰자아를 실현하라!

가설4 - 생물다양성은 큰자아 실현의 잠재력을 증가시킨다.

규범3 - 생물다양성을 증가시켜라!

이 규범들을 종합해본다면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큰자아 실현을 극대화하라!” (Maximize long-range, universal Self-realization!)라는 정식이 단순하게 정초될 수 있다. 또는 보다 구어적인 표현방식으로 이 규범을 정식화한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나 자연적 과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라!”(Live and let live)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에서 만약 불가피하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우

---

137) Deavll and Sessions, 앞의 책, 67쪽.

138) 같은 곳.

리가 없애고자 한다면, “보편적 공생”(universal symbio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생을 극대화하라!”라는 정식은 ‘집단성’만을 우선시하며 ‘개체성’을 파괴해야 한다는 정반대 방향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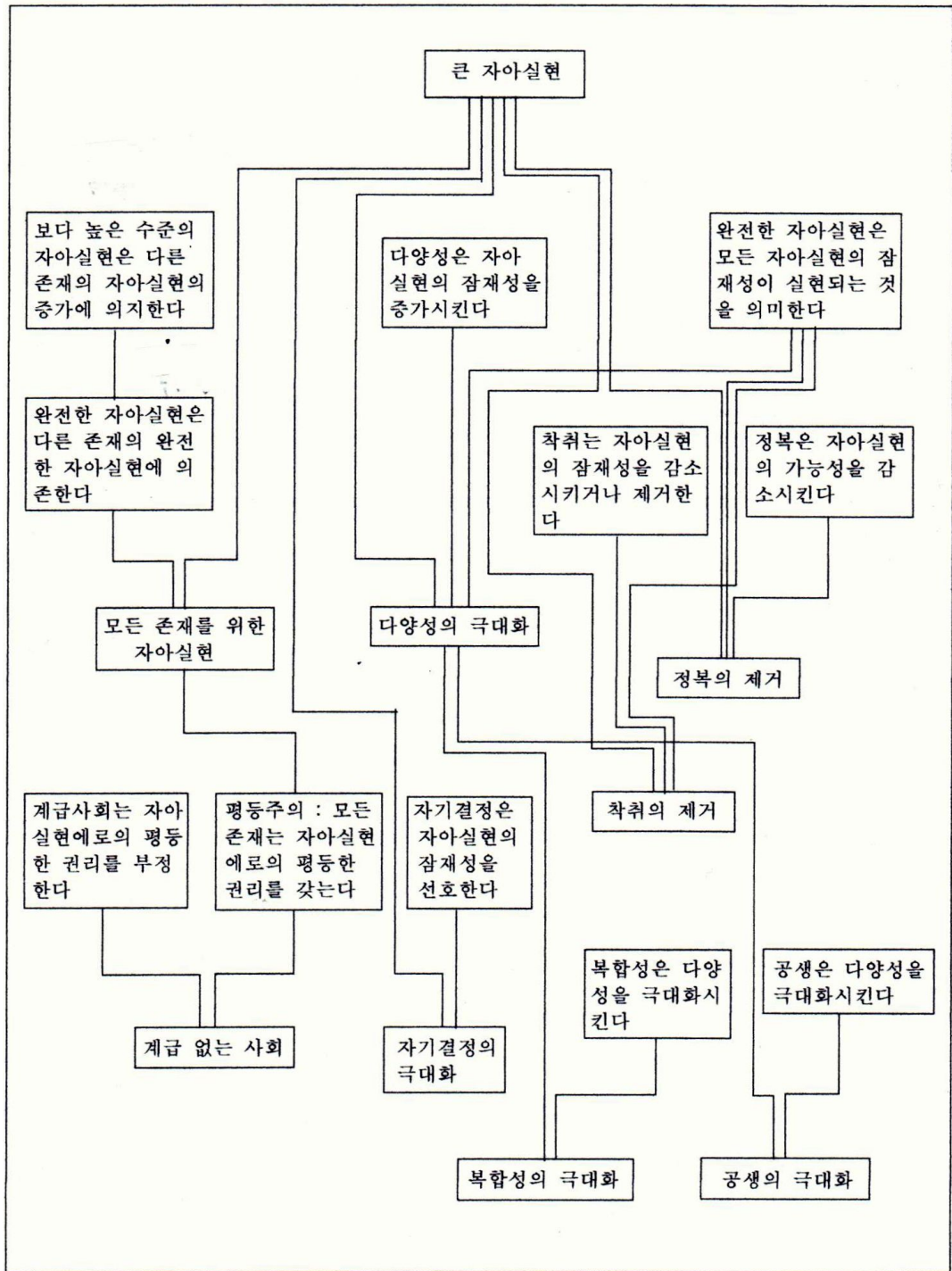
네스에 의하면 삶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은 자아실현의 정도에 비례해서 증진된다.<sup>139)</sup>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에 자아실현의 증가될수록 자아의 확대와 심화가 이루어진다. 개체론적인 방식이 아닌 전체론적 방식으로 조망해본다면, 큰자아 실현을 극대화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의 ‘현시(顯示)’를 극대화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두 번째 정식, 즉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다양성을 극대화하라!”(Maximize long-range, universal diversity!)라는 정식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정식으로부터, 한 개체가 획득한 자아실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존재의 자아실현에 의존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태지혜 T에서 ‘자아 정체성’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개체와 동일시(identification)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주의(Altruism)는 이러한 동일시를 통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어떤 개체의 자아실현의 정도가 증가할 경우에 다른 존재와의 동일시의 감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고, 다른 존재도 그들 자신을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다른 개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는 ‘확장’되고 ‘심화’된다.

위와 같은 논의를 일반화시킨다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존재를 위와 같은 큰자아 실현”(Self-realization for every being!)이라는 규범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다양성을 극대화하라”(Maximize diversity!)라는 규범으로부터 우리는 “공생을 극대화하라!”(Maximize symbiosis!)라는 규범을 도출해낼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의 삶에 있어서 강제(coercion)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

139) Arne Naess, “Self-Realization: An Ecological Approach to Being in the World”, *Deep Ecology for the 21<sup>st</sup> Century*, 226쪽



<그림 1> 생태지혜 T 구조도<sup>140)</sup>

140) Arne Naess,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Deep Ecology for 21<sup>st</sup> Century*, 81쪽.

### 3.2 생태지혜 T의 일상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각종 문제들에 부딪힌다. 지혜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힘이라고 하겠다. 네스는 가중되는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심층생태주의의 제 원리를 창안했고, 그 결과물의 일상화를 위해 생태지혜(Ecosopy)라는 틀을 제시한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조어(造語)인 생태지혜(Ecosophy)는 생물권(ecosphere)에서 삶의 조건에 의해 영감을 받은 철학적인 세계관이나 시스템이 된다.<sup>141)</sup> 철학적 지혜일 뿐 만 아니라, 진선미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서, 실천적 지혜<sup>142)</sup>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지혜라는 말은 사물의 사유와 운행체계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한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적절히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네스가 굳이 생태지혜를 도식화하여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직관으로도 문제해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그의 전제와 결론이라는 철학적 추론 체계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때, 또 알려고 할 때, 곧바로 지혜가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의 앎의 과정은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이 습득되고, 그것이 자신의 기존 지식 체계 내에서 ‘자료’로서 수용될 때에야 ‘정보’의 기능을 하게 되고, 낱말의 정보들이 문제해결에의 ‘지식’으로서 적용되는 과정이 구현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스는 질문하고 질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여차의 주제에 대해서라도 질문을 한다고 해보자. 단편적인 내용에 관한 것에서 시작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수준으로 질문의 수준이 심화된다면, 네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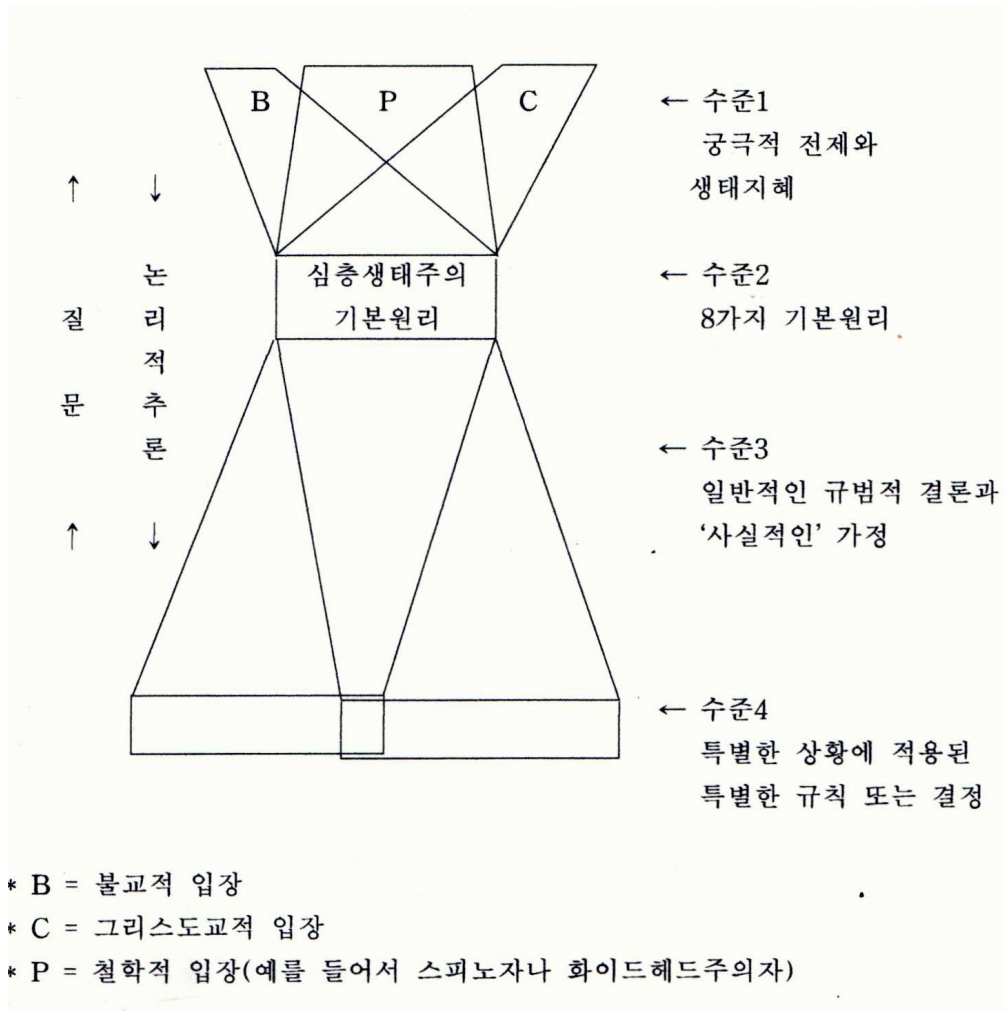
현대의 환경문제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서 또 위계가 상이한 계층들에서 또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어떤 하나의 기준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또 생명체의 변화하는 속성들이 혼잡성을 가중

---

141)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37~38쪽.

142) 실천적 지혜는 진선미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켜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판단, 혹은 좀 더 최선의 가치 선택을 고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우리가 개방적인 마음으로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생태지혜를 다져간다면, 애매모호한 환경문제상황을 딛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좀 더 가까이 접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2> 전제-결론 다이어그램<sup>143)</sup>

<그림 2>에서 수준1은 가장 근원적인 규범이나 대전제, 가정, 혹은 생태지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근원은 스피노자나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나 불교, 도교 등의 종교일 수도 있다. 구태여 그 특징을 지적한다면 과학으로서의 생태학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있는 총체적 조망이라는 점에서 '넓은

143) Frederik A. Kaufman, 앞의 책, 411쪽.

의미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심층생태주의의 기본 원리들은 **수준1**의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다. 네스는 심층생태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배경이 다를 경우, 궁극적 전제인 **수준1**이 다르게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2**의 8개 강령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불교도<sup>144)</sup>든, 기독교도든, 도교신자든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적 신자들이나 철학분파들도 그 믿음의 근원적 차이와 무엇이든 지 간에 모두 생태지혜를 통해 심층생태주의자가 될 수 있다.<sup>145)</sup>

**수준2**로부터 **수준3**의 일반적인 규범적 결론과 사실적(factual) 가설들이 도출되며 마지막으로 이들로부터 구체적인 특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인 **수준4**가 도출된다. **수준4**는 구체적인 특정의 조건에서 특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는데, 즉 **수준1**에서 **수준3**까지의 전제들을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네스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심층생태주의 운동의 지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부터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지만 '심층적인 전제(deep premises)'를 근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층생태주의는 피상적 논의의 전제 조건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다. 심지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간주되는 것도 심층생태주의의 도전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특정의 목적이나 목표와의 관련 속에서 정의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결정이 낮은 단계의 목적이나 목표를 고려해 볼 때는 합리적이지만, 높은 수준의 목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 결정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다. 네스는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네스에 따르면 심층생태주의에서 질문 제기는 서로 다른 입장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규범적 방향성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된다. 피상적 논의들은 기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중단되고 말거나, **수준1**에

144) 네스는 불교의 기본 규범인 비폭력, 자비, 생명존중 정신이 심층생태주의의 기본 원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독교도보다는 불교도가 심층 생태주의를 이해하는데 보다 친숙할 것으로 보고 있다.

145) 세션즈는 자칭 심층생태주의자가 아니어도, 이 강령에 기본적으로 동조한다면 타칭 심층생태주의자로 볼 수도 있다는 논지에서, 기독교 생태신학자 베리를 심층생태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

서 직접 수준4로 이행하는 등, 어떤 특정의 상황에서 비약적으로 궁극적 가치에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규범적 주장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규범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관념을 전제한다. 규범 체계에서 요구되는 거의 대부분의 주장들은 기술적(descriptive)이거나 사실적(factual) 진술들이다. 네스는 심층생태주의의 추론 체계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것’이 존재론이나 기본적인 윤리학 체계 내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46)</sup> 하나의 신념으로서 심층생태주의는 다양한 세계관과 생태 지혜의 입장에서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화가 용이하다.

### 3.3 게슈탈트와 존재인식

네스는 더 많은 이들이 심층생태운동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무에 대한 얘기 보다는,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가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47)</sup>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실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 네스는 생태위기를 해결할 전략을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도 찾는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sup>148)</sup>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오해하기 쉽다. 다음의 예는 게슈탈트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교향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5번 교향곡 <운명>에는 “다다다다 —”가 나옵니다. 그 소절 자체가 이미 음악입니다. 일종의 게슈탈트죠. 그러고는 다음 소절이 나오지요. 그 소절은 첫 부분과 똑같아 보이지만, “다다다다—”가 아니고 “다다다—”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전체이지요. 이 두 번째 게슈탈트는 첫 번째 것이 없다면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향곡의 일부이니깐요. 처음에는 주제부, 전개부를, 그 다음에는 악장들을, 그 다음에는 하나의 전체로서 교향곡을 차례로 경험하게 되지요. 상위와 하위의 게슈탈트들이 10개나 12개의 층으로 있는 거죠.

146) 위의 책, 78-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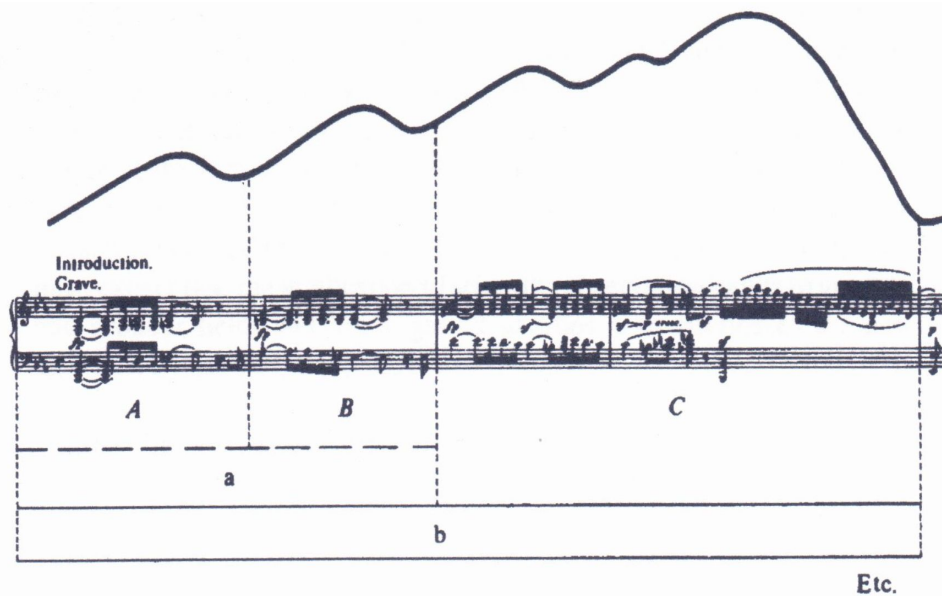
147) Arne Naess, “Ecosophy and Gestalt Ontology”, *Deep Ecology for 21<sup>st</sup> Century*, 240쪽.

148) Arne Naess, “Reflections on Gestalt Ontology”, *the Trumpeter: Journal of Ecosophy*, vol.21, No.1, AU Press, 2005.

물론 전체는 부분들 이상입니다. 하지만 부분들도 전체 이상이지요. 전체만 붙들고 있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스피노자의 자연에 대한 신비주의처럼, 파악할 수 있는 최하위의 계슈탈트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계슈탈트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요. “이제 나는 세세한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크지만 더 포괄적인 계슈탈트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운명>이 연주되는 곳에서 절대적인 순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오케스트라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날이나 콘서트 직전에 경험했던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두가 전체적인 경험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전체로서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이 모든 하위 계슈탈트가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경험으로 모이게 되지요.<sup>149)</sup>

계슈탈트를 시각화하여 설명한 또 다른 예이다. 아래 그림은 베토벤 소나타 13번 ‘비창’이다. 첫 마디 A는 B로 반복되면서 주제가 키워진다. 계슈탈트로서 a는 A와 B가 함께 소나타의 첫 동기를 이룬다. C의 클라이막스와 결말이 더해지면 b는 상위의 계슈탈트로 완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분들이 연속적인 순서의 계슈탈트들로 참여하여서 소나타 비창 전체는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sup>150)</sup>



<그림 3> 베토벤 소나타 13번 ‘비창’<sup>151)</sup>

149) 로텐버그, 앞의 책, 265-267쪽.

150) 같은 글.



네스는 이러한 예를 통해 사람들의 자발적 경험 하나하나가 누적된 것들인 게슈탈트 또는 게슈탈트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이제 음악 감상의 예에서 설명되었듯이, “부분은 한 부분보다 크다.”라는 명제도 성립된다. 따라서 “한 부분만의 경험은 없고, 단절된 실체로서 하나의 전체도 없다.” 네스는 우리의 삶의 경험은 단순히 나와 독립된 어떤 것(things in themselves)만이 아니며, 단순하게 주관적인 내 자신만을 위한 것(things for me)도 아니라고 본다.<sup>152)</sup> 그래서 게슈탈트는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는다. 삶의 경험은 다름 아닌 게슈탈트의 경험이다.

네스에 따르면 서로 경쟁적인 게슈탈트가 늘 존재하지만, 존재론적 ‘지속’ 안에서 벌어지는 실재의 유출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경쟁적이지 않다. 그는 이것을 구체적인 실재와 관련된 상대성의 추상적인 구조에 관한 이론으로서 구체적인 실재는 이러한 게슈탈트적 속성을 가지며, 부분이나 전체가 아니라 하위나 상위의 게슈탈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궁극적 수준의 철학적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서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게슈탈트 논의에서 우리의 자발적 경험인 구체적 내용(concrete contents)과 추상적 구조(abstract structure)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53)</sup> 우리의 자발적인 경험은 구체적 내용이지만, 이러한 경험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추상적 구조이다. 문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로 추상적 구조만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경향이 많고, 대개 우리는 추상적 구조에 압도되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발견되는 상위의 게슈탈트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네스는 이와 관련해서 숲을 관통하는 도로건설계획의 예를 든다.<sup>154)</sup> 도로 건설에 동참하는 전문가들에게 숲은 나무들의 다양한 복합체이며 도로는 단지 하나의 개입에 불과하다. 그래서 숲을 관통하는 도로의 면적이 전체 숲의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들은 도로에 의해 망가지는 지역은 아주 작은 부분(fraction)이기 때문에, 숲을 지키려는 이들이 “도

151)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59쪽.

152) Arne Naess, “Ecosophy and Gestalt Ontology”, *Deep Ecology for 21<sup>st</sup> Century*, 242~244쪽.

153) 같은 곳.

154) 같은 곳.

로가 숲의 심장을 관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전주의자들에게 숲을 가르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숲의 위대함과 장엄함, 순수함 등 도로 건설 이전에 숲이 소유한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숲의 나무들이 잘라져 없어지는 것은 나무라는 하위의 게슈탈트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위의 나무 게슈탈트가 사라진다면 전체로서의 대단히 가치있는 상위의 게슈탈트 역시 사라지게 된다. 하나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위계의 게슈탈트 존재론에서 볼 필요가 있다. 숲과의 자발적인 경험을 통해 숲의 현실을 더 풍부하게 이해한다면, 도로건설에 찬동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 경험을 묘사하면서 적절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설득적이다. 그래서 네스는 경관 같은 상위차원의 게슈탈트에 접근할 수 있다면 광범위한 지속가능성이 달성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 폭넓은 경험, 하나의 포괄적인 게슈탈트 안에서, 더 많이 연결될수록, 생태환경을 위한 실제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sup>155)</sup>

---

155) 로텐버그, 앞의 책, 324~330쪽.

## IV. 심층생태주의 비판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를 가져온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세계관을 주창하여 주목받았다. 특히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환경운동들을 피상적이라 비판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하였다.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문명적 경향에 대한 비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 1. 언어적 표현에 대한 비판

페퍼(Pepper)는 심층생태주의가 피상생태주의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깊다(deep) 얕다(shallow)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러한 용어 자체가 마치 ‘심층생태주의자’에 속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깊다’ ‘얕다’는 것은 그 기준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된 모호한 개념이라, 심층생태주의의 ‘심층’의 개념 역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맑스주의적 생태주의자들은 심층생태주의가 사회의 심층적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을 중요시하지 않는 점을 들어, 오히려 얕다고 비판한다.<sup>156)</sup>

심층생태주의에서 비판하고 있는 ‘인간중심’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다. 심층생태주의의 ‘인간중심주의’의 영역 속에 모든 ‘인간’이 포함됨으로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인간’이라고 하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빈곤한 제3세계와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전 세계 모두를 포함한다. 그 결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오늘날 환경파괴와 생태위기의 불명예스런 역적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한다. 또 심층생태주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심층생태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세계관을 소유한 생태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생태위기를 초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157)</sup>

156) 서태열, 「현대 환경주의의 유형과 그 교육적 함의」, 『지리교육논집』 제49권, 2005, 193쪽.

157) 문종길,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의 철학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환경철학』 1집, 2006, 173~174쪽.

그리고 심층생태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명공동체’는 인류의 입장을 생태계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다. 심층생태주의의 주장처럼 ‘생명공동체’라는 개념을 수용하더라도, 인간이 어떻게 ‘인간(種)중심적’이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다. 또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생태학적 지식의 응용으로서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가치의 문제를 소극적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인 생명존중이라는 가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존재의 ‘목적론적 중심’을 받아들일 경우, 인간은 ‘생명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 인간을 나머지 모든 생명과 비교할 때, 인간만을 특별히 도덕적으로 고려하거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이유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층생태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를 인류중심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심층생태주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욱 강하게 생명중파시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게 된다.<sup>158)</sup>

폭스(Warwick Fox)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모든 구성원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를 부여하려는 심층생태주의에 동조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심층생태주의의 관점을 생물권적 평등주의(biospherical egalitarianism) 혹은 생명중심적 평등주의(biocentric egalitarianism)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폭스에 따르면, 위 용어의 접두어인 ‘생명 *bio*’는 어원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심층생태주의가 마치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실체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을 ‘생명중심적’이라기보다는 ‘생태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sup>159)</sup> 그의 지적대로 심층생태주의의 지향은 단순히 개별 유기체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여, 그 중 전체, 생물집단, 서식지, 인간 및 비인간의 문화 등을 포괄한다.

‘생명평등주의’라는 용어는 심층생태주의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든다. 그러다보니 심층생태주의는 인간에 대해 적대적이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서로 다른 조직화의 유기적 수준

158) 위의 글, 175~177쪽.

159) Fox Warwick, ‘The Deep Ecology: Ecofeminism Debate and its Parallels’, *Environmental Ethics* 11집, 1989, 5~25쪽.

들이 갖는 지위와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인간을 포함하는 종들 간의 평등주의에도 불구하고, 빈곤, 불평등, 그리고 인종주의 등과 같은 주요쟁점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sup>160)</sup>

마지막으로 생태여성주의자인 아리엘 살레(Ariel Salleh)는<sup>161)</sup> 네스의 1972년 논문에서 사용한 ‘인간 man’이라는 용어가 기호학적, 성차별적 결점 그 이상이라고 이해했다. 살레는 네스를 비롯한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인간 man’의 ‘자연 natura’ 지배와 ‘남성 men’의 ‘여성 women’ 지배 사이의 철학적인 관련을 보지 못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인-노예 역할’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 복제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sup>162)</sup>

이상과 같이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살펴보았다.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층생태주의 이론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을 탓한다.<sup>163)</sup> 답답하고, 부당한 문제제기로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네스의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상술되지 않고 개진되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 두드러졌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네스가 동조하는 이들과 함께 심층생태주의 논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철학적 체계를 심화시켰으나, 언어적으로는 심층생태주의가 가진 한계가 더 부각된다고 본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주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언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 2. 자연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

심층생태주의는 생태학과 자연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160) 서태열, 「현대 환경주의의 유형과 그 교육적 함의」, 『지리교육논집』 49집, 2005, 193쪽.

161) 심층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의 관점은 외연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심층생태주의가 성(性)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생태여성주의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살레는 생태여성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더 심층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층생태주의는 또 하나의 자기도취적인 개량주의적 운동에 불과하며,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문화적 창조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서 반계급적이라고 비판한다.

162) 캐롤린 머천드, 앞의 책, 166쪽.

163)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16~17쪽

생태학에서 천이(遷移)에 따른 극상의 상태를 조화와 균형의 이상적인 상태로 설명하는 데, 심층생태주의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선이나 바람직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종이 단일한 정점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가 극상의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 비록 그 극상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자연 상태에서는, 그 극상의 상황 속에서도 역동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sup>164)</sup> 따라서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은 생태학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생태계의 속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등 생태학의 지식이 없다면 환경에 대한 인간행동의 유익성이나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의 제도와 규범의 문제가 수반되는 인간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 공동체를 생태학적 균형과 조화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묘사하거나 가치평가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생태학적 지식인 ‘사실판단으로부터 윤리학적 가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연주의 오류도 거론된다. 그러나 네스는 과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태학에서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연주의 오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65)</sup>

심층생태주의의 주장이 자연 진화의 결정판인 인간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원시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거부하고, 휴머니즘을 거부하는 등의 인간 멸시의 유사종교와 같다는 지적이 있다.<sup>166)</sup> 비판자들은 생명평등주의가 원리적 측면에서는 그럴듯한 설득력을 지닌 선언일지 모르나, 모든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당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 또는 생명평등주의 관점은 곧바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자기보존 욕구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 하나로, 만약 우리가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생명공동체와 목적론적 중심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자기보존욕구와 인간의 자기보존욕구가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 자기 마당을 갈아엎을 잔디를 심거나 집에 테라스를 만드는 일조차도 불가능하게

164) 문종길, 앞의 글, 177~178쪽.

165)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26~27쪽.

166)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105쪽.

될 것이다.

이처럼 생명평등주의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심층생태주의가 자연과 관련한 구체적 윤리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그 방식에 기초한 인간 행동의 규범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일종의 지침인 심층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 앞에서 자연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이지를 관계성과 가치의 원리에 의해 깊이 생각해보도록 우리를 이끈다.<sup>167)</sup> 따라서 심층생태주의가 인간의 고유한 내재적 특성을 부인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자신을 위해 다른 존재를 먹거나 사용하는 등의 도구적 가치로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sup>168)</sup>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의 그물망으로 보고, 개개의 구성원들을 그 속의 하나의 매듭으로 보는 심층생태주의의 주장은 자연의 가치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라이하르트(R. Reichardt)는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도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며, 다른 생명체 및 자연에 대해 취한 행동의 결과를 항상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9)</sup> 심층생태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인간과 자연을 공생관계로 보는 생태학적 가치이다. 즉 심층생태주의의 기반은 ‘생태학’ 자체가 아니라, ‘생태지혜’이다. 생태지혜는 생태학에의 사실과 이론들로부터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견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서, 추상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결정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네스는 생태학적 사실이 직접 윤리적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태지혜’를 통해 생태위기의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관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70)</sup>

---

167)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166~169쪽.

168) Arne Naess, “The Deep Ecological Movement: Some Philosophical Aspects”, *Deep Ecology for 21<sup>st</sup> Century*, 169~171쪽.

169) 황종관, 『생태윤리학』, 한남대학교출판부, 2001, 47~48쪽.

170) Arne Naess, “A Defence of the Deep Ecology Movement”, *Environmental Ethics*, vol.6, 1984, 269쪽.

### 3. 반문명적 경향에 대한 비판

심층생태주의의 주된 주장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자연과의 평화로운 협력을 위해 개인의 태도, 가치 그리고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심층생태주의의 세계관을 따라간다면, 모든 사회가 생태적으로 바뀌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의 바람과 달리 그 전략은 아직까지는 크게 성공적이지 않다. 더욱이 “심층생태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정치적으로 너무 유약하고, 최악의 경우 정치적으로 반동적이라는 것이다(Pepper, 1996, 29).”<sup>171)</sup> 그뿐만 아니라 심층생태주의자들은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띤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사회생태주의자들은 이러한 다수 생점들을 다루는데 실패한 심층생태주의는 더 이상 ‘심층’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언급한다.<sup>172)</sup> 그들은 심층생태주의의 실패원인이 사회에 초점을 두지 않은 탓으로 설명한다. 특히 북친의 입장에서 생태위기 문제는 처음부터 사회문제였다. 그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과 “위계질서와<sup>173)</sup> 지배에 대한 비판과 해체가 현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자연 내 인간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이 사회체계를 조직하는 방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려 했다. 이러한 북친의 경향은<sup>174)</sup> 심층생태주의에서 생태지혜 T

171) 서태열, 앞의 글, 193쪽.

172) 위의 글, 193쪽.

173) 북친이 설명하는 위계는 다음과 같다. “복종과 명령의 문화적, 전통적, 심리적 체계는 계급과 국가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위계와 지배는 ‘계급 없는’, ‘정부 없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내가 지배라고 말할 때, 그것은 ‘늙은이의 젊은이에 대한 지배’, ‘어떤 인종에 의한 다른 인종의 지배’, 자신들이 더 고상한 사회적 이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에 의한 대중의 지배’, ‘도시에 의한 농촌의 지배’, ‘정신에 의한 육체의 지배’, 피상적 도구적 합리성에 의한 영혼의 지배’를 말한다.” 북친은 위와 같은 사회적 위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동기와 수단이 되는 심리적 조건과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의로운 공동체는 공동의 필요와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만들어진, 일체의 지배가 없는 사회를 꿈꾸었다.

174) 북친은 심층생태주의는 동양적 신비주의적 전통 위에 ‘시스템’의 틀을 덮고 있는 ‘혼탕’이며, 일관성 없고, ‘실체가 없는 알팍한 형태’로서, 동양적 ‘심장’을 가진 서구적 ‘정신’의 최악의 상태에서의 혼합물이라고도 비난하였다.



의 12번째 규범인 ‘계급 없는 사회’와 공유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친은 심층생태주의에서 ‘직관적 사유’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이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거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심층생태주의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직관은 이성보다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했다. 왜냐하면 생명중심주의라는 틀 안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직관은 그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은 그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중심적인 관점을 실천하다 보면, 반(反)인본주의적인 양태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도 하였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를 포함하여 생태의식을 기르는 공동체의 유형을 소수의 전통에서 추구하려는 심층생태주의의 경향은 반문명적, 반문화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층생태주의 운동에서 제안되는 개인적 직접행동들을 보면, 원시 사회의 수렵채집인의 방식으로 지역 생태계를 돌아보게 하여 이해를 돕거나, 도교와 힌두교, 불교 공동체를 포함한 동양의 전통들로부터 생물학과 생태학의 교훈들을 빌려와서 배우고 실제 적용해보는 것들이다. 그래서 요가, 호흡운동, 지구 의식 행사, 합기도(合氣道) 수련 등을 통해 생태학적 의식을 기른다. 또 자발적인 간소함이 있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기술에 물음을 던지는 것 등을 통해, 환경을 치유하고, 녹색정치에서 활동한다.<sup>175)</sup>

이러한 심층생태주의 운동들에 대해 “원시적 비과학적 생태지향적인 문화가 자연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켜주는 면이 있으나, 모든 원시적 전통이 생태의식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령숭배적 또는 범신론적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sup>176)</sup>고 경고한다. 우리 세계에 대한 더욱 풍요롭고 긍정적인 개념을 제공해줄 수 있으려면, “심층생태주의처럼 상상력의 부분을 현학성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과학의 도움으로 지적 정합성을 갖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sup>177)</sup>

---

175) “The minority tradition and direct action”,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17~39쪽.

176) 문종길, 앞의 글, 180~181쪽 참조.

177) 위의 글, 182쪽.

## V. 결 론

철학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구하며, 그 시대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을 제시해왔다. 환경철학도 환경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아르네 네스는 시대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생태운동에 뛰어들었으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심층생태주의를 창시했다. 그는 큰 자아(Self) 탐구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환경철학을 형이상학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의 피상적 해결방법과 결별하고, 심층적 해결방법을 생태주의운동에 적용하고자 하였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적이고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생명중심적,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만이 환경위기를 극복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네스가 제시하는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17세기 철학에서부터 심층생태주의가 탄생하기까지, 그 배경과 관련 사상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베이컨은 실험과 엄밀한 관찰, 정확한 측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귀납의 자료들을 통해, 자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서양의 과학은 그러한 방법론을 수용함으로써 오늘의 과학기술문명을 창출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베이컨의 방법은 그 때까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어머니 자연을 보호하던 금기들을 한갓 미신으로 취급하게 만들며, 자연파괴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도구적으로 대상화 시키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방법론은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을 거치면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지배의 윤리를 정당화시켰다. 그러한 17세기 철학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은 신본주의를 넘어서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고, 오늘의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다.

지금의 생태위기를 가져온 산업문명을 이끈 자본주의는 자기중심적 윤리의 산물로서, 대체로 17세기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반영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화이트 2세의 의견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있다. 하지만 열강의 식민지 확대와 미국 청교도들의 정착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환경파괴 및 원주민 문화파괴를 통해 자본주의를 공고히 한 것은 명백하다.

심층생태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자급자족과 협력을 통해 큰자아(Self) 실현이 증가한다는 생태지혜 T의 구현에 부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기적인 성장주의 체제로서 자연고갈과 환경파괴를 심화시켜왔고,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익만을 중요시 하다가는 공멸한다는 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려면 심층생태주의의 ‘공생의 극대화’라는 규범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결과에 의하여 판단하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미래를 확증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문제를 담고 있다. 특히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여서는 맹목적 인간우월주의라 비판받는다. 이에 대하여 확장된 공리주의는 기존의 공리주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의 비도구적 가치들을 고려하고, 도덕적 고려대상의 범위도 시공간적으로 확장시켜 적용해서 현실 환경정책에 적용한다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유익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확장된 공리주의는 심층생태주의에서 문제의 근원을 보다 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점에서 상통하는데, 문제해결 전략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오늘날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공물들이 들어서면서 본래의 자연상태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포드 윈쇼는 인간을 위해 적절한 환경관리와 보존(保存)이 필요하다고 하고, 존 뮤어는 야생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전(保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조금 남아있는 야생 자연만이라도 무조건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탈인간중심주의 환경철학에서 피터 싱어는 존재의 본성이 어떠한 간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대우를 해야 한다는 동물해방론을 주장했다. 톰 레건도 육식과 사냥, 애완동물사육, 동물 서커스 등 동물에 대한 인간의 여러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들 행위가 동물의 권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동물의 이익관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슈바이처는 생명외경의 태도를 통해 인간이 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를 제안했다. 폴 테일러는 슈바이처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자연존중의 입장을 발전시켜 철학적으로 정교한 형태의 생명중심 윤리를 확립했다.

네스의 심층생태주의는 기존 환경철학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왔음을 비판하며, 보다 폭넓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이면서도 통합된 환경운동을 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심층생태주의는 상호 연관적이고 전체 장(場)적 이미지를 선호하며, 원칙적으로 생물권적 평등주의를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양한 생명종들이 그들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도록 공생의 원칙을 추구하며, 죽이거나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어선 안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생태적 평등주의, 공생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반(反)계급적 자세를 취한다. 더 나아가 심층생태주의는 오염과 자원고갈에 투쟁하는 것도 강조하면서, 생명체가 생태적 균형을 획득한 지역에서 가능한 자기 충족성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와 분권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심층생태주의는 행동원리로서 8대 강령을 제시하였다. 이 강령은 심층생태주의 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반인데,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세세한 명시는 없으나, 세계관으로서 생명중심·생태중심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태지혜 T’를 ‘전제-결론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심층생태주의는 당면한 환경과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세계관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관계망 속에 연결된 생태적 세계관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생태적 자아’로서 자연과 생명 공동체 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실현을 통해 나와 자연이 하나되는 ‘큰자아 실현’을 인식하기 원한다.

이러한 심층생태주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된다. 이를테면 언어적 표현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문명적 경향에 대한 비판 등이다. 하지만 심층생태주의는 그동안 인간중심적인 반생태주의적 사고와 자연을 기계처럼 분리하고 나눠서 보는 세계관의 결과인 환경과 생태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지배적 세계관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태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환경철학은 삶의 현장에서 끌어올린 것이고, 바로 그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관점이다. 그런 면에서 실천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네스의 심층생태주의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볼 수 있게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은 불가피하게 실제적 상황에 대한 함축을 지닐 수밖에 없다. 생태지혜 T는 우리의 삶의 양식을 돌아보게 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큰자아 실현을 통해 궁극적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예시하며,

환경문제와 삶의 문제의 근원에 도달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활동이 바로 사유하는 인간으로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시켜준다.

## 참고문헌

### 국내 단행본

-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현실, 2002.
- 대한성서공회, 『한영성경전서』, 2002년.
- 데이비드 로텐버그, 『생각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요?』, 박준식 옮김, 낮은 산, 2011.
- 데이비드 페퍼, 『현대환경론』, 이명우의 옮김, 한길사, 1989.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이길상 옮김, 탐구당, 1990.
- 로렌스 C. 스미스, 『2050 미래 쇼크』, 장호연 옮김, 동아시아, 2010.
- 마리아 미스.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외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0.
- 머레이 북친, 『사회 생태론의 철학』, 문순홍 옮김, 솔, 1997.
- \_\_\_\_\_, 『휴머니즘의 옹호』, 구승희 옮김, 민음사, 2002.
-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2006.
- 스털링 P, 램프레이트, 개정판 『서양 철학사』, 김태길외 옮김, 을유문화사, 2010.
- 스피노자,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양진호 옮김, 책세상, 2010.
- 신승철, 『눈 밖에 난 철학 디지털로 본 철학』, 리죐, 2005.
- 아르네 네스 외, 『산처럼 생각하라』, 이한중 옮김, 소동, 2012.
- 알렉상드르 마트롱,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김문수 외 옮김, 그린비, 2008.
- 앤드루 소벨외, 『질문이 답을 바꾼다』, 안진환 옮김, 에크로스, 2012.
- 엘 고어, 『환경재앙을 넘어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우리의 선택』, 김지석 외 옮김, 알피니스트, 2010.
- 오제키 슈지외, 『환경사상 키워드』, 김원식 옮김, 알파, 2007.
- 유복환, 『Green is Money』, 위즈덤하우스, 2009.

- 이기상, 『글로벌 생명학』, 자음과 모음, 2010.
- 이도원, 『떠도는 생태학』, 범양사출판부, 1997.
- 자크 아탈리, 『살아남기 위하여』, 양영란 옮김, 위즈덤 하우스, 2010.
- 장희익, 『삶과 온생명』, 숲, 2004.
- 조셉 스타이거, 『현대 환경사상의 기원』, 박길용 옮김,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2008.
- 조용재 외 공저, 『환경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2003.
- 존 뮤어, 『나의 첫 여름』, 김원중의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8.
-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이을상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 조셉, R 데자르탱, 『환경윤리』, 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
- 진교훈, 『환경윤리 - 동서양의 자연 보전과 생명 존중』, 민음사, 1998.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캐롤린 머천트, 개정판 『래디컬 에콜로지』, 허남혁 옮김, 이후, 2007.
- 프레드 싱거 외,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 강민정 옮김, 동아시아, 2009.
- 프리츠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 김용정 외 옮김, 범양사, 1998.
-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4.
- 한중훈 외, 『기후변화의 불편한 진실』, 세오미디어, 2012.
- 헨리. J. 맥클로스키, 『환경 윤리와 환경정책-생태학적 접근』, 황경식 옮김, 범양사, 2000.

## 국내 논문

- 황종관, 『생태윤리학』, 한남대학교출판부, 2001.
- 권혁길, 「생태윤리학의 다원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제58호, 2005.
- 김명식, 「영미권 환경철학의 역사」, 『환경철학』 제3권, 2004.
- 김명식 외, 「환경철학의 역사와 연구동향」, 『과학사상』 제50호, 2005.
- 문종길, 「심층생태주의는 생태위기의 철학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환경철학』 1집,

2006.

- 배석원, 「인간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의 다윈론」, 『철학논총』 제30집, 새한철학회, 2002.
- 서태열, 「현대 환경주의의 유형과 그 교육적 함의」, 『지리교육논집』 제49권,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2005.
- 서향숙, 「심층생태주의 철학에 기초한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송명규, 「사회생태학과 심층생태학의 생태과시즘 논쟁과 그 교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06.
- \_\_\_\_\_, 「심층생태학과 사회생태학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행정학회지』 제16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 \_\_\_\_\_, 「환경철학의 전개2 : 근본 생태론1」,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1집 1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6.
- 윤용택, 「생태적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 사상. 문화』 제11집,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0.
- \_\_\_\_\_,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교화 사이」, 『과학사상』 제50호, 범양사, 2005.
- \_\_\_\_\_, 「환경윤리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공리주의」, 『철학연구』 제71집, 대한철학회, 1999.
- \_\_\_\_\_, 「환경철학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제82집, 대한철학회, 2002.
- 윤 일,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환경교육에 대한 기본논의」, 고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이도원, 『떠도는 생태학』, 범양사출판부, 1997.
- 이상철, 「생태윤리의 근거로서의 ‘무소유 정신’에 대한 연구」, 『윤리연구』 제83호, 한국윤리학회, 2011.
- 이정배, 「생명담론의 한국적 실상」, 『인간·환경·미래』 제6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1.
- 이태수, 「신이 되는 인간: 심층생태주의의 경우」, 『인간·환경·미래』 제2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09.
- 조석영, 「심층생태주의 환경 윤리학에서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 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조현철, 「심층생태주의와 신 중심적 생태적 세계관」, 『신학과 철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07.
- 진교훈,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환경윤리학의 과제」, 『환경교육』 제1권, 한국환경교육학회, 1990.
- 진희중, 「근본적 생태철학에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최병우, 「심층생태학과 생물평등 및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정의」, 『공간과 사회』 제16호, 2001.
- 한면희, 「녹색성장과 철학」, 『철학과 현실』 제 86호, 철학문화연구소, 2010.
- \_\_\_\_\_, 「환경운동사로 본 환경정의」,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8집, 한국현상학회, 2006.

## 외국어 문헌

- Arne Naess,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The Basics of Deep Ecology", the *Trumpeter: Journal of Ecosophy*, vol.21, n.1, AU Press, 2005.
- \_\_\_\_\_,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 A Summary", in *Inquiry*, vol.16, 1973.
-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Deep Ecology-Living as if Nature Mattered*, Peregrine Books, 1985.
- Bob Jickling, "Deep Ecology and Education: A conversation with Arne naess", *Canad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5, spring 2000.
- Carolyn Merchant, *Death of Nature*, Harper & Row, 1980.
- Fox Warwick, 'The Deep Ecology: Ecofeminism Dabate and its Parallels', *Environmental Ethics*
- Frederik A. Kaufman, *Foundations of Environmental Philosophy : A Text with Readings*, McGraw-HillCollege, 2002
- Mark A. Schroll, "Wrestling with Arne Naess: A Chronicle of Ecopsychology's

Origins” in the *Trumpeter: Journal of Ecosophy*, vol.23, n.1, AU Press  
2007.

Michael E. Zimmerman ed., *Environmental Philosophy : from animal rights to  
radical ecology*, Prentice Hall, 2005.

Susan L. Flader, *Thinking like a Mountain*, Bison book,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Columbia, 1974.

[Taylor, Paul W.](#), *Respect for Nature : A Theory of Environmental Ethics*,  
[Princeton](#), 1986.

## ABSTRACT

### A Critical Analysis of Deep Ecology

-Focusing on Arne Naess' Ecosophy T-

**Hong, Eun seon**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matter of environmental crisis has gradually been getting worse, even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devising new measures for over 40 years. Since 1972, various protocols and agreements for the environmental crisis have been made because they are constantly being dealt with as an international agenda.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for applying solutions that have been suggested from these protocols and agreements on account of the different positions of each country and difference of each country's level of development. After all, reformed expedients for the environmental crisis are confined to temporary substitutes which cannot solve fundamental problems. Philosophy has worried about this situation to resolve trouble of age, and proposed views of the world which help people to live in that age appropriately. Environmental philosophy also has been instigated from the needs of the generations that are trying to overcome the environmental crisis.

Arne Naess, a philosopher from Norway, could not bear to watch the ecological crisis that the age faced, so he threw himself into ecological movements and erected deep ecology strategies. He tried to pull

environmental philosophy to metaphysics within the huge subject of Self exploration. He separated from existing superficial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risis, and tried to apply grok solutions to ecological movements. He advocates that only changing an anthropocentric outlook of the world to eco-centric outlook of the world is the solution for environmental crisis.

According to Arne Naess's deep ecology strategy, Naess recognized existing eco-philosophy was one of turning points in science community, but he criticized that the message from environmental philosophy was distorted and unsuccessful, he then argued the necessity of a broader, long-term, fundamental united environmental movement. Deep ecology prefers mutual related, overall images, and aims biological egalitarianism. Deep ecology pursues the principle of symbiosis and disapproves of any to have an ability of kill or overwhelm other species. Also, deep ecology poses anti-class in order to correspond to ecological egalitarianism and the principle of symbiosis. Deep ecology puts the emphasis on complexity that contributes to factors of interactive make one system, and seek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to consolidate self-fulfillment of organisms in the area of ecological balance. Besides, Naess suggested 8 doctrine principles of behavior which includes the features of deep ecology. These eight formulations are the actual base of deep ecological movement. Though it does not specify how to behave in reality, it suggests the adoption of the point of view of bio-centric, and eco-centric as an outlook of the world. It also suggests 'Ecosophy T' as a visualized 'diagram of premise-conclusion'. Deep ecology denies the existing outlook of the world in order to resolve facing environmental crisis, and puts a request to the ecological world to view that there are huge connections in one big network. Deep ecology wants to recognize the higher level of 'Self-realization' and be together with nature as an 'ecological self'.

There are many criticisms to the opinion of the deep ecology. They are related to verbalism, arguments are based on ecology, and human's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I recognize that deep ecology has contributed to settle destruction of environment and ecological crisis which are the result of a selfish, fragmented world view that exists with anthropocentric, anti-ecological thoughts.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how world view has affected to human life and recent ecological crisis and the age of philosophy which is the root of the world views. Ecophilosophy is come from living place, and it is the point of view that is proposed to apply to the living place. In that sense, the practical parts are more emphasized.

Through Naess' deep ecology, we were able to extend our cognition from anthropocentric to watch the ecology of whole space. Philosophy as the world view reluctantly has an implication of a practical situation. 'Ecosophy T' makes us to analyze our life style, and forecast that we could pursue euphoria from self realization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fying nature. And 'Ecosophy T' also make us realize that the activity of throwing questions about ecological problem, and human's life problem is the initial point to reach to foundation of these problems as a reasonable human to resolve the problems creatively.